

CITY OF ANGEL



엔젤정신이 이어진다!
청년엔젤이 들어올린 대구사랑이야기



Bareumi Hotel Inter-Burgo



59% OFF

PREMIUM PACKAGE

이제, 호텔에서 놀자

치맥하며 놀자 ~

시원한
맥주
카하

~~₩718,000~~

₩298,000

특 / 별 / 우 / 대 / 가 (2인기준) 패키지 상품은 당일 취소는 불가합니다.

PREMIUM
PACKAGE

디럭스 더블룸 or 디럭스 트윈룸 + 호텔조식(2인) + 사우나2인

+ 석식2인 (더뷔페 or 심비디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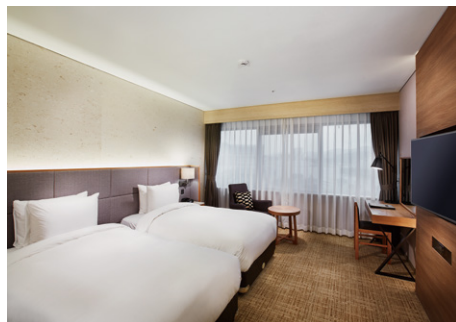
더뷔페 (월-금), 심비디움 바닷가재 (주말 / 공휴일)

+ 프리미엄 치맥

밤별소 아진포차 치킨 & 생맥주 2잔 제공

객실예약

053) 602-7173



Bareumi Hotel Inter-Burgo

아름다움과 아늑함이 공존하는
바르미 인터불고호텔



픽업주문 시 10% 할인

바르미앱으로 피드백 주문하고,
더뷔페를 집에서 즐기자!

Google Play App Store 에서
지금 바로 바르미&인터불고호텔 앱을 다운 받으세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300번지)

212, Palhyeon-gil, Suseong-gu, Daegu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300번지)

212, Palhyeon-gil, Suseong-gu, Daegu



엔젤을 추앙^{推仰}합니다

‘추앙(推仰)’이라는 단어는 흔히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대중적으로 불러온 건 얼마전 방영된 JTBC 주말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연출 김석윤, 극본 박해영)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잘 쓰이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그 뜻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봄’. 영어로 바꿔보니 더 눈에 들어옵니다. ‘respect, worship, reverence.’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경기도 외곽지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며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삼남매의 ‘행복소생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인공 ‘구씨(손석구)’에 열광한 드라마이기도 하지요. 아침 마다 마을버스와 전철을 옮겨가며 서울로 출근하는 여주인공 염미정(김지원)은 어느 날 뜨내기처럼 아버지의 싱크대 공장으로 들어온 구씨에게 자신을 ‘추앙’하라고 합니다. 자신은 단 한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 ‘추앙’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젤’이었습니다. 그냥 ‘감사하다. 존경한다.’는 말로는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추앙’이라고 하니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흔치 않은 단어라 엔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적당한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해방클럽’이 ‘엔젤클럽’과 연결되고, 그 해방클럽의 이야기가 쓰여질 ‘해방일지’가 ‘엔젤클럽매거진’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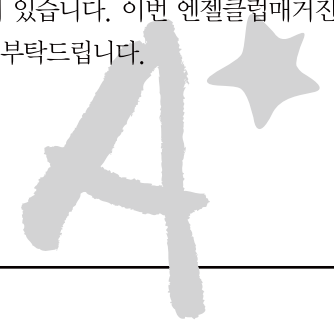
‘엔젤을 추앙(推仰)합니다’

적박한 국내 축구문화에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을 외치며 5년 이상 길게는 8년 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은 엔젤클럽의 개척자, 황금세대를 추앙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엔젤이 된 모태엔젤에 이어 가장 어린 엔젤이 된 1호 초등엔젤을 추앙합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선수생활을 하다 은퇴한 후 자신이 된 시민구단을 후원하겠다고 나선 전前 대구FC선수 출신 엔젤을 추앙합니다. 축구장에 한번 왔다가 대박에 꽃혀 온가족이 동시에 엔젤과 엔시오에 가입한 가족 엔젤을 추앙합니다. ‘자유, 가족, 봉사, 낭만’이라는 가치로 새로운 엔젤문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테 뭉친 푸른세대 젊은 엔젤들을 추앙합니다. 큰 뜻으로 함께 해준 다이아몬드 엔젤을 추앙합니다.

시민구단 사랑이 곧 지역사랑임을 확신하며 우리와 동행한 새로운 엔젤, 엔시오를 추앙합니다. 엄중한 코로나 시기를 당당하게 이겨내면서도 변함없이 엔젤의 책무를 다하는 우리 엔젤, 엔시오 모든 분들을 추앙합니다. 시민구단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서포터즈, 시민여러분을 추앙합니다. 그리고, 엔젤과 시민들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우리 대구FC 선수들을 ‘추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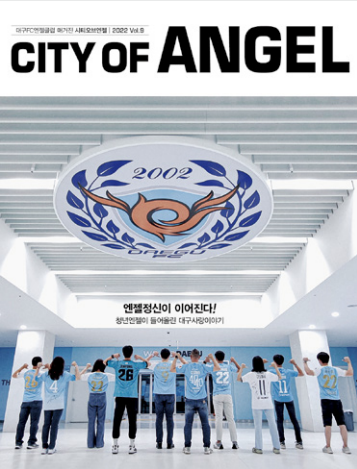
이 모든 ‘추앙’의 이야기는 엔젤클럽매거진 ‘시티 오브 엔젤’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엔젤클럽매거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을 추앙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구FC엔젤클럽 회장 이호경



CITY OF ANGEL

대구FC엔젤클럽 매거진 시티오브엔젤
2022 Vol.9



엔젤의 '푸른세대'(The Blue Generation)가 떴다. 하나 둘 늘어난 젊은 엔젤들이 최근 '영스카이본부' 조직하여 왕성한 활동하기 시작했다. '자유', '소통', '응원', '가족', '봉사'라는 가치로 무장한 이들의 어깨 너머로 엔젤의 미래가 보인다.

계간 | 2018년 10월 10일 등록

등록번호 | 수성, 바00011

발행일 | 2022년 8월 26일

발행기관 | (주)엔젤클럽

발행·편집인 | 이호경

편집장 | 김용하

편집위원 | 김중두, 손지훈, 조은비

제작 | 멀티에드(대표 김정미)

포토그래퍼 | 대구FC

디자이너 | 이지은

인쇄 | (주)케이비팩토리(대표 이분숙)

(주)엔젤클럽

42064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만촌동, 호텔인터불고 대구)

전화 | 053-602-7307

팩스 | 053-602-7306

이메일 | daeguangel@naver.com



영스카이본부의 젊은 엔젤들이 대구 축구의 심장 대박을 찾았다. 엔젤클럽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은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엔젤의 세계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푸른 하늘 같은 영스카이본부 엔젤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봤다.

COLUMN ESSAY

4 엔젤을 추앙(推仰)합니다

COVER STORY

8 엔젤클럽 영스카이본부
엔젤정신 새롭게 이어간다



ANGEL WITH US

- 16 **다이아몬드 엔젤 列傳**
이명수 (주)진양오일셀 대표
- 맨손 하나로 '도전' '도전'
30평 공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 20 **엔젤 초대석**
대구의 마스체라노 김귀현
엔젤의 날개 달다
- 24 **언택트한 인터뷰**
이병우, 나재승 엔젤
대구FC 고재현, 황재원 선수
- 32 **플레이에스코트**
선수들과 손에 손잡고 행복하고 신기한 추억!
- 38 **다시 대박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완화, 육성 응원 가능
엔젤, 축구팬의 귀환 그래도 개인방역은 철저하게
- 44 **엔젤 축구대회**
대구FC엔젤클럽회장배친선축구대회 3년 만에 열려
6개 팀 참여, 친선 도모 대구FC 후원 한 목소리
- 50 **모태엔젤 주안이의 성장일기**
건강하고 훌륭한 엔젤로 키우겠습니다
- 51 **초등생 1호 엔젤**
모태엔젤에 이어 첫 초등생 엔젤 탄생
- 52 **가족 엔젤**
온가족이 엔젤엔시오, 엔젤 패밀리가 떴다!
- 53 **엔젤 브리핑**
- 55 **대구FC엔젤클럽의 뿌리_ 5년 엔젤**
5년 엔젤! 엔젤클럽 정착의 증표
시간 지날수록 5년 엔젤도 늘어
- 76 **엔시오 리포트**
이동명 엔시오(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박사과정)
- 손흥민 원더골 직관, 눈 앞에서 인사 받고 황홀

DAEGU FC REPORT

- 80 대구FC 소식
- 82 대구FC 라인업

ANGEL DIARY

- 94 엔젤 다이어리
- 104 엔젤클럽 스폰서 | 엔젤클럽 조직도
- 106 다이아몬드 엔젤
- 108 엔젤 명단 | 엔시오 명단
- 119 엔젤클럽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

엔젤의 푸른 하늘 Youngsky-Angel!

엔젤의 내일! 우리가 열어갑니다

COVER STORY



엔젤클럽 영스카이본부 엔젤정신 새롭게 이어간다

젊은 엔젤 중심으로 구성, 첫 정모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서
초기 황금세대에 이은 푸른세대 '자유, 봉사, 가족, 낭만' 추구



축구에서는 '황금세대'라는 말이 흔히 쓰인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 경우 킷스, 벤크, 스콜스, 네빌 형제 등 팜(farm : 유소년육성시스템) 시스템에서 자란 어린선수들이 20대 초반부터 당당하게 팀의 주전을 맡으면서 황금세대를 이룬다. 국내 축구에도 황금세대라 할 수 있는 세대들이 있다. 가장 가까운 런던올림픽 동메달의 주축 세대다.

엔젤에도 황금세대가 있다. 엔젤의 황금세대는 오늘날의 엔젤을 만들어낸 세대다. 이호경 회장을 비롯하여 초기 발기인 및 집행부 멤버, 그리고 5년 이상 활동중인 엔젤들이 그들이다.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엔젤의 위상도 없다. 이들은 기를 마련했다. 축구라고 하면 국가대표 밖에 몰랐던 척박한 지역 축구문화토양에 엔젤의 씨를 심었다. 때로는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나' 오해를 받았던 1세대의 고통은 모든 개척자들의 눈물어린 스토리와 궂을 같이 한다. 텅빈 대구스타디움에서 자리를 지켰고, 관중 1만 시대를 외쳤으며, 축구전용구장 건립과 시민구단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 닿는대로 움직였다. 1부 승격을 함께 했고, FA컵 우승의 감동을 공유했으며, 일본으로 건너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를 경험했다. 엔젤의 산역사다. 이 첫 번째 황금세대를 잇는다면 엔젤의 역사는 사라질 것이다.

이제 그 토양 위에 새로운 세대가 떴다. 이번에는 '푸른세대'(The Blue Generation)라는 명칭이 어울린다. 최근 '영스카이본부'를 조직하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젊은 엔젤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앞선 황금세대와 다른 경향이 있다.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이라는 엔젤의 기본 목표는 같다. 하지만, 독립운동 하듯 처절하게 엔젤캠페인을 전개했던 앞선 세대와는 달리 자유롭고, 회원 간 소통하고, 마음껏 응원하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분위기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봉사와 숭선수범을 잊지 않는다.



1



2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이란 목표 아래 새로운 엔젤문화 형성

젊은 엔젤들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다고 한다. 기존 엔젤세대가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인맥이 닿아 있던 터라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융화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하지만 젊은 엔젤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모임을 형성했고, 그들만의 엔젤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젊은 엔젤들의 모임을 강조했던 손현구 엔젤(룩카케어)은 “엔젤 가입 후 솔직하게 좀 뽐눴다. 아는 엔젤도 많지 않고, 나이가 젊다 보니 먼저 다가가기에도 조심 스러웠다”며 “엔젤사무국에 젊은 엔젤의 모임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는 것과 함께 뜻맞는 젊은 엔젤들과 함께 단톡방을 만들고 소통하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이들의 단톡방은 ‘자유’롭다. 축구경기가 있으면 중계방송이 된다. 단톡방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수백개의 댓글이 붙는다.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서로 뜨겁다. 선물이 쏟아지고, 번개모임이 즉석에서 잡힌다. 육아에서부터 갖가지 사적인 이야기도 오간다.

오프라인에서는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를 실천했다. 대구스타디움 시절에도 김밥, 맥주, 치킨 등 일부 엔젤들이 봉사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대박 시대에는 음식물 등에 대한 제한이 이뤄졌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문화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엔젤들을 중심으로 다시 봉사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젊은 엔젤들은 일찍 경기장에 도착해서 엔젤룸을 소독하고, 여름에는 얼음이나 음료도 미리 준비한다. 엔시오에서 엔젤로 갈아탄 이지영 엔젤은 “홈경기 당일 하는 일이 많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그동안 사무국에서 주로

해오는 것 같았다”며 “엔시오일 때는 조심스러웠으나 엔젤이 된 후로는 직접 나서서 미리미리 챙겨준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엔젤의 정신인 것 같다.”고 말했다. 봉사라고 하면 손현구 엔젤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코로나 기간 동안 타지에서도 차를 몰고와서 엔젤룸을 소독할 정도였고, 엔젤클럽 사무국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엔젤카’를 깨끗하게 세차하는 정성을 보였다. 요즘에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스스로 홍보맨을 자처하며 온갖 사진을 찍어 올린다. 그는 “봉사와 나눔을 통하여 엔젤들이 좀 더 쾌적하고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게 해드리고 싶어 작은 것부터 실천했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엔젤들과 소통하고 알아갈 수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영스카이본부’(이하 ‘영스본’)라는 이름으로 이사회를 거쳐 공식적인 조직으로 거듭났다. 지난 7월 22일에는 첫 번째 정기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부를 이끌어갈 상임부회장은 조승우 엔젤이 맡았다. 몇 번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압도적인 추천으로 초대 상임부회장을 맡았다.

조승우 상임부회장은 “젊은 엔젤들이 경기장에서 오히려 더 대면대면해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손현구, 안승민, 박성수 등 10여명의 엔젤들이 같은 연령대의 모임을 갖자는 의견을 냈고 젊은 엔젤 중심의 단톡방부터 개설하고 소통하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번개모임을 가지며 준비기간을 가지다 올해 초 본격적으로 의기투합해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본부라고 해서 눈에 드러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려고 한다”며 “우선 경기장에서 엔젤들을 위한 작은 봉사, 그리고 함께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하면서 엔젤응원문화를 바꿔보려 한다.”고 말했다.

첫 정모, 많은 젊은 엔젤 참여 앞으로 활동 기대

지난 7월 22일 영스본의 첫 정기모임이 열린 조승우 상임부회장의 사무실(이지컴퍼니)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금요일을 맞아 하나 둘 모여드는 젊은 엔젤들은 손에 손에 선물과 이날 추천할 경품들을 들고 왔다. 그 중에는 안면이 익은 엔젤도 있으나, 생소한 엔젤도 있었다. 영스본의 일차적인 목표는 엔젤존의 활성화다. 지역 소주를 너무 사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술짚맨 황재민 엔젤(우신기업)은 “솔직히 엔젤존 응원분위기가 뜨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으샤으샤’ 이런 분위기로 잘 해보자!”며 “젊은 엔젤들이 분위기를 업(UP)시켜야 엔젤들의 전체 응원 분위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엔젤존은 대구FC서포터즈석과는 멀고, 원정팀 좌석과는 가까운 곳이다. ‘응원의 최전선’으로 살벌한데, 기세는 약하다. 아군은 멀고, 적의 기세가 강하니, 이제 영스본의 엔젤들이 나선 것. 앞으로 서포터즈석과 엔젤존의 연합 응원전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대구FC서포터즈 사정에 밝은 김기나 엔젤은 “그동안 엔젤과 그라지예(대구FC서포터즈)와의 접점이 없었다. 모두 대구FC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같은 만큼 응원에도 접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영스본이 엔젤과 서포터즈의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젤 내에서의 소통도 중요하다. 영스본이 이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금씩 엔젤에 대해 알아가는 안계준 엔젤(신한금융그룹 신한라이프)은 “젊은 엔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갔고, 별도의 카톡방을 통해 엔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 소통할 수 있어 좋았고, 열정도 느껴진다. 앞으로 참여도가 더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3



4



5

1 정모를 진행중인 조승우 영스본 상임부회장
2 영스본 현수막
3 경품에 당첨된 박영일 엔젤
4 침중 도 침중(이지영 엔젤(좌), 김기나 엔젤)
5 우리들의 의견은(조혁준 엔젤(좌), 김동희 엔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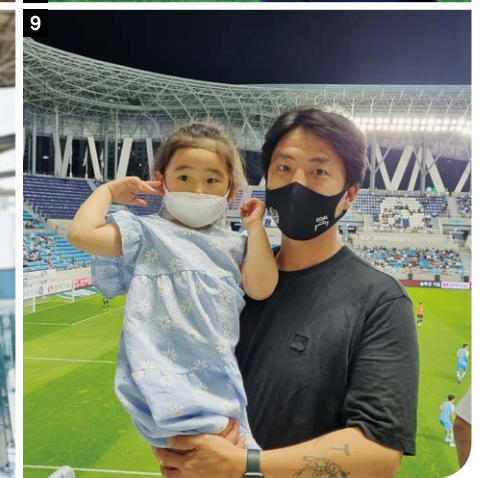
1 영스본 어벤져스(양승원 엔젤)
2 뒤편이엔제나 즐거워(김호철 엔젤(좌), 조태근 엔젤)
3 대구라는 자부심(조승우 부회장(좌), 김동휘 엔젤)



부산에서 이날 정기모임에 참석한 김동휘 엔젤(굿네이버스) 역시 “젊은 엔젤들이 많아지면서 친밀감이 높아지고 소통하기도 좋다”며 “앞으로도 대구FC를 사랑하고 응원하며 각종 모임에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참여할 생각이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엔시오 활동을 하다 영스본 출범과 함께 엔젤이 된 양승원 엔젤(경북동부신문 대표)은 “엔젤클럽 회원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많다보니 가까워질 기회가 적은데다 연령대가 차이되면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영스본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젊은 분위기가 느껴져서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에 첫 정모에 새로운 회원들을 많이 뵈기도 했지만 짧은 시간이라 모두 알아가기는 어려웠다.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겠지만 종종 번개모임이나 공동 한번씩 차면서 서로를 알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미래의 엔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영스본을 통한 엔젤의 홍보와 회원 증가에도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대구FC서포터즈 회장을 역임했던 노재관 엔젤은 “엔젤 내에서도 젊은층들이 소통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며 “엔젤의 젊은 피들이 뭉친 만큼 엔젤의 홍보나 새로운 엔젤분들을 유입시키는데 좀 더 힘썼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엔젤도 “영스본이 앞장서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앞서 나가는 한편 엔젤클럽 내 신·구의조화를 잘 이루어 전체적인 엔젤이 한단계 더 성장하길 바란다.”며 영스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비슷한 연령대, 가족간 유대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엔젤활성화 가능

푸른 피가 흐르는 영스카이 엔젤이다 보니 대구FC를 사랑하는 폭도 넓다. 자주 접하는 주전 선수들은 물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선수들에 대한 애정도 깊다.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이현규 엔젤(미성회계법인)은 “대구FC B팀의 홈경기는 물론 때로는 원정경기에도 찾아 다니며 2군 선수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영스본 참여 문화 속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동안 얼굴 보기 어려웠던 엔젤들도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로 인하여 엔젤활동에 참석하지 못했던 조혁준 엔젤(스카이승무원학원)은 “엔젤 가입후 개인 사정상 활동이 뜸했다. 최근 영스본이 만들어지면서 자주 소통하고 있고, 이렇게 젊은 엔젤들과 만나니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했다. 엔젤가입 후 사업상 바쁜 일들로 활동이 뜸했던 양승혁 엔젤(인문사 대표)도 “손현구 엔젤이 자주 연락이 와서 영스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충분히 공감했다”며 “앞으로는 틈나는 대로



4 코로나야 물렸거라! 소독중입니다~(손현구 엔젤) 5 영스본 정모에 참석, 젊은 엔젤을 격려하는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 6 대박으로 젊은엔젤들을 초대하는 조승우 영스본 부회장 7 대구의 영광을(노재관 엔젤) 8 대박은 언제나 최고(박성호 엔젤(좌), 조태근 엔젤) 9 가족은 나의 힘(이현규 엔젤과 딸)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승혁 엔젤은 이날 모임에서 동창을 만났다. 바로 박태범 엔젤(HB신소재 대표)이다. 순둥순둥 인상이 좋은 이 동창엔젤들은 이날 술잔을 권하며 지난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 사는 곳도 가깝다. 엔젤의 브로맨스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젊은 세대이다 보니 가족간 소통과 대를 이은 엔젤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손현구 엔젤은 “영스본은 비슷한 연령대이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 경기장에 오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있다”며 “다같이 대박에서 만나 축구를 관람하며 가족간 함께 하면 서로 언니 오빠 친구가 되어 미래의 엔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딸바보 이현규 엔젤도 젊은 세대답게 가족과 함께 하는 경기장 문화를 강조했다. 이런 문화들은 부분적으로 있어 왔지만, 앞으로 영스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엔젤클럽의 또다른 문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엔젤들의 바람은 영스본의 활약으로 또다시 엔젤클럽의

활성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엔젤출범 초기의 황금세대와 엔젤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푸른세대’의 절묘한 조화로 엔젤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다. 또한, 엔젤의 정신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푸른엔젤 영스본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승우 영스본 상임부회장은 “엔젤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대구FC와 엔젤클럽에 대해 그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젊은 세대에 걸맞게 젊은층을 위주로 엔젤 및 엔시오를 적극 홍보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엔젤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모임에 직접 참석한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은 “영스카이본부의 정기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회장으로서 어깨가 더 무거워진 느낌”이라며 “대구FC는 물론 우리 지역 사회를 좀 더 젊고 밝게 만들겠다고 의기투합한 영스카이엔젤들의 면면을 보면서 큰 희망을 가지게 됐다. 대구 사회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4

엔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선수들의 가슴 속에는 항상 엔젤의 함성이 살아있습니다.

ANGEL
WITH
US

기업 역량 사회환원 차원에서 엔젤가입 맨손 하나로 ‘도전!’ ‘도전!’ 30평 공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이명수 다이아몬드 엔젤
(주)진양오일실 대표



승리와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높은 온도와 압력이 없으면 탄생하지 않는다. 다이아몬드 엔젤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여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다이아몬드 엔젤에 가입한 이명수 (주)진양오일실 대표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환경 속에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도전정신’ 하나로 30평 남짓 공장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스마트 공장 추진 등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룬 기업의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 사랑과 봉사도 함께 실천하고 있다. 이제 ‘축구사랑을 통한 지역사랑’이라는 목표를 가진 ‘엔젤캠페인’에도 동참했다. 빛나는 다이아몬드 엔젤 이명수 대표를 지면으로 만나본다.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엔젤 가입기념 사인볼을 받고 있는 이명수 대표

대구FC가 매우 중요한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다이아몬드 엔젤이 되어 주셔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가입하시게 된 배경은?

기업인인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지만, 대구시민으로서 대구FC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힘이 되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가입하는 것은 물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달성복지재단, 적십자 등 여러 기관을 통해 꾸준히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이윤의 지역환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의 본질적 활동인 경제적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과 핵심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진양오일실은 꾸준한 관심과 활동을 통해 더 밝고 따뜻한 우리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대구FC가 좋은 성적을 내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지역의 스포츠 팀, 특히 시민구단의 역할과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여가생활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고 시민들의 만남과 화합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구단이라는 공동된 팀을 응원하고 관심을 가지으로써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동시에 축구 커뮤니티 형성과 삶의 질적 향상,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처럼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같은 부가적인 효과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진양오일셀

올해로 창업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진양오일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변화와 도전을 통해 창업 초기부터 품질혁신과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내법인 및 해외법인을 통해 핵심 고무기술을 활용한 전자, 자동차 산업분야에 다양한 셀을 생산하여 국내를 넘어 해외 유수의 전자, 자동차 메이저 기업들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오일셀 부품 전문기업입니다. 가전산업에는 세탁기, 냉장고, IT관련 고무부품에 대해서도 기술적 진보를 통해 현 시장 및 신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산업에 발맞추어 전기차 배터리 가스켓, 수소자동차 유체시스템용 씰링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력자원과 고무 핵심기술, 첨단 생산시설, 앞서가는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청송 출신으로 어려운 형편에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8년 만에 창업을 하셨는데, 창업 당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정신'입니다. '태산이 높다 해도 불가능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맨손 하나로 자동차 부품의 진입 철벽을 넘어서기 위해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였습니다. 30평 남짓한 작은 공장에서 출발해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면서 무식처럼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위기에서 오히려 강해지기 위해 직원들과 합심하여 지금까지 진양오일셀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IMF사태에도 거래처와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해외 진출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기업 환경이 어려운 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사회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도전하는 과정 속에는 항상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였고, 그 도전의 길에 맞닥뜨린 위기와 난관을 절대로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시행착오의 값비싼 경험을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울수록 불굴의 정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전진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마트등대공장' 공모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IT와 제조업을 접목하여 스마트한 공장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으신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우리 제품의 성능과 품질은 독일, 일본 등 선진기업이 경쟁 대상이고,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중국기업과의 경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 기술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자동화와 DT(Digital Transformation)를 바탕으로 선진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넘어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연구개발로 글로벌 시장 선도

말씀을 듣고 보니, 앞으로 진양오일셀이 걸어갈 길이 더 궁금해집니다. 미래의 진양오일셀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내 로컬 시장을 넘어 치열한 글로벌 시장 한가운데에 뛰어들어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지속 성장가능 기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로 글로벌시장을 선도해갈 진양오일셀의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젤클럽 회원과 축구팬, 대구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실천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직원들과 함께 대구FC 홈경기 관람기회도 갖고, 뒤에서나마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⁴⁾



진양오일셀 임직원과 엔젤클럽 임원들이 이명수 대표의 다이아몬드 엔젤 가입을 축하하고 있다

대구FC 선수 출신 1호 엔젤

대구의 마스체라노 김귀현 엔젤의 날개 달다



지난 6월 21일 2022 하나은행 K리그 1 대구FC와 제주유나이티드 경기가 열린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팍).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얼굴이 있었다. 바로 '대구의 마스체라노'라 불렸던 김귀현 선수! 그는 이날 선수가 아니라 엔젤의 일원으로 대팍을 찾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게 몇 년만인가, 김귀현 전 대구FC 선수를 만난 것이. 2014년에 팀을 떠났으니 8년 만이다. 여전했다. 강인한 얼굴과 단단한 체격, 그러나 그의 눈을 들여다 보면 한없이 순수하다. 그의 고향 바다가 들어 있다. 그렇게 모처럼 찾은 대팍에서 그는 한편으로는 놀랐고, 한편으로는 만감이 교차했다.
“대팍을 보니 정말 당장이라도 뛰고 싶을 정도로 흥분이 됐어요. 경기장 분위기도 그만이구요. 시민들의 사랑 또한 대단했습니다. 대구FC가 정말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귀현 엔젤이 선수로 뛴 때만하더라도 홈 구장은 대형 트랙이 있는 대구스타디움이었다. 종합경기장으로는 국제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지만, 축구를 보기 위해서는 전광판이 필요했을 만큼 컸다. 한마디로 축구와는 궁합이 맞지 않았다. 숙소는 클럽하우스가 없어 원룸을 전전했으며, 연습구장 구하기도 만만찮은 때였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김귀현 엔젤의 표정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좌) 올림픽 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고(사진_김귀현 본인 제공), (우) 대구FC 입단 후 데뷔골을 넣고 기뻐하는 모습(2014년 10월 26일)

처음 찾은 대팍, 선수시절 떠올라 만감이 교차

전라남도 임자도 출신 '섬 소년' 김귀현! 그는 아르헨티나, 대구, 오만과 이란 카타르 등 여러곳에서 선수생활을 거친 뒤, 이번에는 대구FC엔젤클럽 회원으로 축구후원천사가 됐다. 대구FC 선수 출신으로 엔젤이 된 첫 케이스다. 그에겐 처음이란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첫 번째 한국출신 아르헨티나 프로선수였고, 오만 프로리그의 첫 번째 한국선수였다. 이란에서는 프로 경기를 실제로 뛴 첫 번째 한국 선수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시민구단을 후원하는 대구FC선수 출신 '첫 번째 엔젤'이 됐다.
은퇴 후 대구에서 바모스(VAMOS)축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지난 4월 정소영 엔젤클럽 상임부회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엔젤이 됐다. 평소 가입하겠다는 생각이 있던 차에 정 부회장으로부터 추천받고 두 말 않고 가입했다. 최태원 엔젤이 회장으로 있는 대구풋살연맹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귀현 엔젤의 사람 됨됨이를 좋아하는 정소영 부회장은 “선수시절 플레이를 보면 강인하고 적극적이어서 현대 축구에 맞는 스타일이었다”며 “중동에서 잘 뛰었지만, 대구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했다. 최태원 엔젤 역시 김귀현 엔젤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는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뛰며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였던 만큼, 대구에 오면서 축구팬들의 관심이 극도로 높아졌다.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정소영 부회장은 “김귀현 엔젤이 좋은 지도자로서 지역에 많은 유소년들을 육성하는 한편, 자신이 몸담았던 팀 대구FC의 후원자로서 축구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 받았다.”고 했다.

섬소년 김귀현, 축구의 나라 아르헨티나로

김귀현 엔젤이 축구를 시작한 곳은 경남 남해의 축구교실이었다. 마침 지도자가 아르헨티나 출신이었다. 2년 만에 팀이 없어지면서 귀국해야 했던 코치는 그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아르헨티나로 함께 갔다. 어린 나이고 보니 해외생활은 힘들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스페인어라 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인종차별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 둘 적응했다. 무엇보다 축구가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축구에 죽고 사는 나라다. 도처에 풋살장이 있었는데,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했다. ‘축구가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어느덧 음식도 입에 맞았고, 하루하루 익숙해져 갔다. 아르헨티나 CA벨레스 사르스필드 유스팀에 입단한 그는 유망주였다. 2군 시절에는 팬들에게 ‘제2의 마스체라노’라고 불릴 정도였다. 2군 주장까지 맡으며 활약한 그는 2010년 12월 1군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한국인 최초 아르헨티나 프로리거 1호였다.



(위) 은퇴 후 대박을 처음으로 찾은 김귀현 엔젤
(아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당시 벨레스 사르스필드는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다. 좋은 선수들이 많았던 만큼 주전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2군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언제든지 1군 무대에 뛸 준비가 돼 있었다. 홍명보호의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됐던 것도 그때였다. 2011년 중국과의 평가전에 그는 부모님이 지켜보는 보는 가운데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뛰는 감격을 맛봤다.

2012년 12월 대구FC로 국내 복귀, 이목 집중

소속팀에 복귀해서도 2군에서 뛴 김귀현은 2012년 12월 드디어 K리그로 복귀했다. 팀은 대구FC. 당시 K리그 1부리그팀이었던 대구FC는 하위권을 맴돌았고, 다음 시즌 중상위권 도약을 기대하며 팀을 정비해 가던 상황이었다.

최태원 엔젤은 “당시 김귀현 선수는 체력과 투지가 뛰어나고 넓은 시야와 패스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그의 대구행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그는 동계전지훈련 지인 튀르키예(터키) 안탈리아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K리그 개막 전 팬들과 만난다는 꿈은 사라졌고, 그 후로 시즌 내내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많은 기대를 받은 만큼, 경기를 뛰지 못한 김귀현 선수의 아쉬움도 컸다. 다음해 팀도 2부리그로 강등되고 말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오통이처럼 일어났다. 동계훈련을 무사히 마친 그는 2014년 들어 준주전으로 활약했고, 그해 10월에는 K리그 데뷔골까지 기록했다. 마침 가족들이 경기장에 있었던 만큼 기쁨도 컸다. 하지만, 대구FC와의 인연은 이것이 끝이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내내 아쉬웠던지 인터뷰 내내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제가 잘 뛸 수 있는 포지션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서 뛰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후회 없이 못 뛴 것, 그래서 팬들이 준 성원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게 안타까웠습니다.”

찾은 부상, 주 포지션 찾지 못해 대구 떠나, 중동에서 새로운 인생 시작

대구를 떠나 경주시민프로축구단에서 잠시 몸을 담았던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해외, 중동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2015년 여름 그는 오만 프로리그 알 나스르와 인연을 맺었다. 이로써 오만 프로리그를 경험한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다. 오만 역시 낯선 나라였다. 향신료가 강한 음식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는 축구 하나로 버텼다. 다행히 오만에서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보였고, 마즈다컵대회 우승이라는 값진 경험을 했다. 리그 최우수 미드필더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더 큰 무대에서 뛰었다. 2016년 그는 서아시아 최강이라 할 수 있는 이란의 페르시안 걸프리그의 나프트 아바단FC로 이적했다. 이번에도 그는 이란 프로리그에서 경기를 직접 뛴 최초의 한국인 선수라는 타이틀도 가졌다.(이란리그 첫 진출 선수는 권준, 하지만 그는 부상으로 실제



정소영 부회장(좌), 최태원 엔젤(우)과 함께

경기는 뛰지 못했다) 그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역사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자디 경기장에도 두 차례 뛰었다. 유럽식 거친 축구가 김귀현 엔젤에게는 맞았던 것이다. 새롭게 빛나던 그는 카타르 알 아흘리로 진출했다. 당시 카타르 리그는 국내급 선수들에게 오피가 왔던 만큼 그의 이적은 주목할 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첫 경기를 뛰고 부상을 당한 그는 이후 태국에서 선수생활을 마쳤다.

대구에서 선수출신으로는 뜻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고 해외에서 최선을 다했다. 영광의 순간도, 또 부상으로 인한 좌절의 시기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단단해지고, 또 풍부하고 깊어졌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대구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다.

은퇴 후 대구서 바모스축구센터 운영, 지역 유망주 길러내

파란만장한 그의 드라마는 새로운 시리즈로 이어진다. 이번에는 선수가 아닌 지도자다. 지난 2019년 대구에서 ‘바모스축구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유망주들을 길러내고 있다. 나이가 이제 엔젤클럽의 일원이 되어 친정팀 대구FC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축구사랑의 또 다른 감동적인 모습이다. 엔젤가 그가 지도한 선수들이 그를 대신해서 대박을 누비며 대구에서 못다 펼친 꿈을 다시 피워낼지 모를 일이다.

대구FC 선수 출신 엔젤1호가 된 김귀현 엔젤은 “선수 생활을 마친 뒤, 대구와 축구를 위해 할 일이 뭔가 고민하다가 대구FC를 후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엔젤이 되기로 했죠”라며 “이와 함께 지역의 자질이 뛰어난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선수들을 길러내고 싶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41**

대구FC 고재현, 황재원 선수와
이병우, 나재승 엔젤의 언택트한 인터뷰

재재라인 고재현-황재원은 대구FC “우승라인!”

대구FC에 고재현-황재원의 '재재라인'이 있다면, 엔젤클럽에는 이병우-나재승의 '우승라인' 있다. 대구FC의 우승을 바라는 마음에서 갓 지은 두 엔젤의 별명이다. 고등학교 동창인 우승라인은 졸업 후에도 변치 않은 우정을 자랑하더니, 엔젤클럽에도 이기환 다이아몬드 엔젤의 추천으로 같은 날 함께 가입했다. 한때 야구를 좋아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완전 축구팬이 됐다. 사회에서는 서로 힘이 되어 주고, 대박에서는 서로 선수들을 응원하고 경기를 즐긴다. 우승라인은 대구FC 선수라고 하면 누구나 좋아하지만, 올해는 '재재라인'에 꽂혔다. 나재승 엔젤은 “고재현 선수는 이탈리아 대표팀 인자기의 이름을 따서 '고자기'라 부를 정도로 골 냄새를 잘 맡는다.”며 “앞으로 더 좋은 활약을 펼쳐, 득점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재원 선수의 플레이에 반한 이병우 엔젤은 “처음에는 22세 이하인지 몰랐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침착하고 정말 열심히 뛰다”며 “앞으로 대구FC의 주축 선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수칙이 많이 완화돼 대면 인터뷰를 생각했지만, 최근 다시 재확산 조짐이 있어 안전을 위해 언택트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우승라인'과 '재재라인'이 만났다. '우승라인' 두 엔젤은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재재라인'이 대구FC의 우승에 기여하는 '우승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며 두 선수의 활약을 기대했다.

[인터뷰 참가자]

대구FC : 고재현 선수(FW, 이하 '고'), 황재원 선수(MF, 이하 '황')

엔젤클럽 : 이병우 엔젤(HOTEL 여기어때 대구역점 대표, 이하 '이'), 나재승 엔젤(HOTEL 여기어때 구미1호점, 이하 '나')



이병우 엔젤



나재승 엔젤



고재현 선수



황재원 선수



MF 17 고재현

생년월일 1999. 3. 5.
신체 180cm, 67kg
전 소속 대륜고
K리그 통산기록 82경기 13득점 4도움

DF 2 황재원

생년월일 2002. 8. 16.
신체 180cm, 73kg
전 소속 홍익대
K리그 통산기록 22경기 1득점 2도움

엔젤, 그 이름은 ‘감사’

나 대구FC엔젤클럽이 벌써 7년째를 맞고 있다. 두 선수는 엔젤클럽을 알고 있는가.

고 처음 입단했을 때부터 엔젤클럽을 알고 있었다. 입단 후 힘들 때마다 엔젤클럽에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든든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것 같다. 선수들 모두가 엔젤클럽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황 고재현 선수의 말처럼 엔젤클럽이 있기에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너무 감사한다.

이 두 선수를 사랑하는 엔젤들에게 인사를 부탁한다.

고 엔젤클럽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

황 후원과 응원덕분에 힘들 때도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운동장에서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어려움은 나의 힘. 임대와 부상으로 힘들었던 시기 극복

나 FIFA U-20 Worldcup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기대가 높았다. 입단 첫 해는 어떠했는가.

고 처음 입단했을 때 자신감만 넘쳤던 것 같다. 자신감 하나만으로도 프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프로의 벽은 높았다. 많이 부족했다.

이 2020년 하반기 서울이랜드FC로 임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경기를 많이 뛰고 싶었기 때문에 서울이랜드FC 임대를 선택했다. 대구에서 경기를 뛰기에는 경험과 실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기에 이랜드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돌아오자는 생각이었다.

이 서울이랜드FC의 생활은 어땠는가.

고 딱히 힘든 점은 없었다. 임대시절 팀 성적이 안 좋아서 조금 힘들었지만, 경기를 계속 뛸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나 임대 경험이 올해 활약에 도움이 되었는가.

고 아무래도 경기를 많이 뛰다 보니 실전감각과 자신감이 생겼다.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등에 대해 많이 배웠다.

나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은.

고 한 골 한 골이 모두 소중하다. 최고의 기억은 대박에서의 첫 골(전북전)이다. 22시즌 구단의 리그 첫 골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나 골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해야 할까. 득점의 비결이 있다면.

고 성실한 선수에게 기회가 온다고 이근호 선배가 항상 강조했다. 그 말이 꼭 맞다. 항상 성실히 집중력을 가지고 뛰다 보니 득점 운이 따랐던 것 같다.



Photo by 이다연

이 입단 때부터 주목받았다.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황 수비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활동량으로 헌신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런 모습을 좋게 봐주셔서 경기에 계속 출전할 수 있는 것 같다.

나 대구FC에 입단한 이유는.

황 수원FC 유스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뒤 사이드백으로 전향했다. 나와 잘맞는 포지션 때문인지 거기서부터 잘 풀렸다. 홍익대로 진학한 후에 대구FC와 연습경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경기를 잘 봐주셨던 것 같다.

나 프로에 입단할 때까지 어려움은 없었나.

황 팀을 옮겨 다니면서 부상을 많이 당했다. 부상에서 회복하면 또다시 다치곤 해서 마음 고생이 많았다. 프로팀에 와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다.

이 데뷔전은 어땠나. 나상호 선수를 전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 경기 이틀 전에 선발이라는 것을 알게 돼 엄청 긴장했다. 개막전을 뛸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저 열심히 뛰자는 생각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이 ACL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서 입지를 굳혔다.

황 데뷔한 해부터 국제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 좋은 무대를 일찍 경험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고재현 선배가 자신감을 많이 심어줘서 너무 고맙웠다.



나 포항전에서 골을 기록했다. 당시의 기억을 소환한다면.

황 원래 코너킥 때는 골을 넣으려 들어가지 않는다. 주로 역습에 대한 수비를 맡는다. 그런데 그날은 코치님들이 들어가라고 했다. 마침 오승훈 선배의 헤딩이 나에게 날아왔다. 골대 쪽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서 처음에는 피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머리에 맞아 데뷔골을 되었다. 솔직히 데뷔골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소중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어 뿌듯했다.

고재현-황재원의 '재재라인' 후반기엔 더 강력하게

나 대구FC의 강점은.

고 끈끈함이다. 쉽게 지지 않고 쉽게 실점하지 않는다. 선수 모두 한마음인 것도 대구의 장점이다.

황 나 역시도 끈끈함이 강점이라 생각한다. 다른 팀들이 대구와 경기하면 힘들다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11명 모두가 하나되어 간절히 뛰는 것이 최대 무기다.

이 팀내 호흡이 잘 맞는 선수는.

고 '재재라인'이라고 재원이랑 호흡이 잘 맞는다. 서로 눈빛만 봐도 의도하는 플레이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황 마찬가지로. 고재현 선배가 있고 없고가 수비와 공격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공수 모든 부분에서 호흡이 잘 맞는다.

이 하반기 시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 시즌 초중반에 좋은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다. 어쨌든 휴식기까지 잘 마무리했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모두가 잘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그라운드에서겠다.

황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다.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원정에서 승점 쌓는 것이 중요하기에 온 힘을 다해 뛰겠다.

이 올해 팀, 그리고 개인의 목표는.

고 팀 목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위스플릿이고 또 하나는 FA컵 우승이다. 개인적으로는 시즌 마무리까지 부상없이 지금처럼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자리수 득점에 대한 목표는 두지 않고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황 팀 목표는 당연히 상위스플릿 진출과 FA컵 우승이다. 개인적인 목표는 2022시즌 영플레이어 욕심이 있다. 그리고 제대로된 데뷔골도 넣고 싶다.

축구는 우리 삶의 전부!

나 두 선수는 축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고 초등학교 때 동네 축구를 하다가 클럽 코치님 눈에 들어 제안을 받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것이다.

황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축구하는 것을 좋아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축구를 하러 다녔다. 그 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축구부에 들어가 공을 차게 되었다.



이병우, 나재승 엔젤님에 전달하는 고재현, 황재원 선수의 친필 사인

이 존경하거나 롤모델이 되는 선수가 있다면.

고 현재는 수원FC로 이적한 황순민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대구에 있을 때 조언도 많이 받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등 후배로서 황순민 선배를 보며 저렇게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황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다. 시합 전에 항상 그의 스페셜 영상을 보곤 하는데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다. 사이드백에서 최고의 선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자신에게 축구는 무엇인가.

고 내 인생이다. 축구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이 바로 축구선수이기 때문이다.

황 축구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한 마디로 축구는 내 삶의 전부다.

이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가.

고 전반기보다 좀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 재원이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도 잘 맞지만 앞으로 더 잘 맞춰서 멋진 장면들을 만들고 싶다.

황 재재라인이 좀 더 부활해야 할 것 같다. 이기는 축구를 하고 싶다. 이겨야 즐겁고 그것이 팬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나 태극마크를 위해 경쟁해야 하는 선수가 있다면.

고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엄원상 선수다. 서로 부상없이 긍정적인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면 나 스스로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파에서 고재현, 황재원 선수의 친필사인을 받고 행복해 하는 이병우 엔젤 부부(왼쪽), 나재승 엔젤

황 누구를 특정하기는 조금 어렵다. 지금 사이드백 포지션에서 세대교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살짝 노려보고 있다.

우리에겐 시민들이 있다! '시민구단'은 선수들의 자부심!

나 시민구단에서 뛰는 선수로서 남다른 마음가짐이 있다면.

고 굉장한 자부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있다. 더울 때도, 추울 때도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는 모든 대구시민에게 감사하다.

황 대구시민들이 응원 속에 좋은 경기를 펼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 대구시민과 서포터즈, 엔젤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많은 응원과 성원 덕분에 경기장에서 더 힘을 내 한발짝 더 높이 뛸 수 있었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더 재미있고 즐거운 축구로 보답하겠다.

황 이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의 존재도 있다. 행복한 축구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고, 기대하는 성적을 꼭 거두겠다. **4***

엔젤 플레이에스코트

선수들과 손에 손잡고 행복하고 신기한 추억!

대구FC VS 울산현대(2022년 7월 9일 대파)

엔젤의 천사들이 대파에 뒀다. 지난 7월 9일(일) 대구FC와 울산 현대의 하나원큐 K리그 1 축구경기가 열린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파)! 경기시작에 앞서 플레이에스코트로 축구후원천사 엔젤의 아이들이 양팀 선수들의 손에 손을 잡고 피치로 입장했다. 하늘색 대구FC 유니폼은 물론 엔젤클럽 마크가 들어간 상의를 입고 입장하는 아이들은 말 그대로 경기장의 천사였다. 대기실에서 아이들은 다소 긴장하기도 했지만 설렘이 더 앞섰다. 하지만 조명이 환한 푸른 피치에 오르자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다. 경기장에 입장한 후에는 선수들과 함께 기념촬영으로 이날의 추억을 남겼다. 플레이에스코트는 사전에 신청받은 후 공정한 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플레이에스코트에 참여한 아이들은 선수들과 손을 잡고 입장하면서 설렌다고 하기도 했고, TV로만 보던 선수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더 없이 행복했다고도 했다. 당초 기대하던 선수와 손을 못잡아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당일 우연히 손을 잡은 선수의 팬이 되기도 했다. 축구선수라고는 손흥민 선수밖에 몰랐던 한 친구는 흥철과 손을 잡고 입장한 후 아예 흥철로 돌아섰다. 축구장에서 이런 추억을 만드는 것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아이들은 이번을 계기로 축구를 더 사랑하게 됐다. 엔젤들도 아이들을 보내 놓고 연신 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같이 했다. 이날 대파는 코로나 이후 최대 관중인 9,500명을 넘겼다. 많은 관중들 앞에서 엔젤의 천사들이 영원히 추억에 남을 이벤트를 가졌다. 엔젤의 가족이어서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 행복한 순간을 담아봤다. 



Photo by 대구FC



선수들과 함께 입장한 행복한 추억

— 박성호 엔젤, 두 아들 강찬이·힘찬이



박성호 엔젤의 강찬이·힘찬이 두 아이가 플레이에스코트가 됐다. “힘찬이는 앞서 경험이 있어 당당하게 들어갔지만, 첫째 강찬이는 처음이어서 긴장이 됐다고 합니다. 힘찬이는 김진혁, 강찬이는 울산 선수와 손을 잡은 게 좀 아쉬웠지만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고 해요.” 박성호 엔젤은 “두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다 보니 평소보다 더 긴장했어요”라며 “아내가 이진용 선수를 좋아하는데 대구FC 선수들 모두 무더위에 힘을 내고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좋아하는 선수와 함께 입장, 더 없이 좋아

— 이기환 다이아몬드 엔젤, 늦둥이 나겸이

이기환 다이아몬드 엔젤의 늦둥이 나겸이는 정태욱의 손을 꼭 잡았다. 늦둥이인 만큼 이기환 엔젤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는 나겸이도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처음으로 경기장 안에 들어가 보는 거라 많이 긴장됐어요. 또 선수들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많이 설레고 떨렸어요. 어떤 선수의 손을 잡고 걸을 지 궁금했는데 제가 좋아하던 정태욱 선수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어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엔젤 아저씨들께~ 이나겸 올림”. 이기환 다이아몬드 엔젤의 얼굴에도 웃음이 한바가지다!



조카들의 자랑스러운 영웅이 된 서동국 엔젤

— ‘미리 선수 사인 받으면 좋은 선물될 듯’



이날 조카와 함께 경기장을 찾은 서동국 엔젤은 요즘 조카 친구들 사이에서 영웅이 됐다. 서동국 엔젤은 “에스코트에 참여한 저희 조카는 아주 행복한 경험을 했으며 대구FC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으며 또한 주변 조카들도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난리났네요. ㅎㅎ 저는 엔젤로서 저희 조카들에게 커다란 영웅이 되어 버렸답니다.”라며 이런 기회를 준 대구FC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서동국 엔젤은 나아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에스코트키즈를 위해 선수들에게 사인을 미리 받아서 선물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경기전이라 사인부탁이 부담스러울테니 미리 받아서 아이들에게 선물해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라며 제안하기도 했다.

대박 입장할 때 웃음이 절로 나와

— 김동국 엔젤, 아들 문성이 딸 지윤이 참여



김동국 엔젤과 아이들에게도 이날은 좋은 추억이었다. 아들 문성은 황재원 선수, 딸 지윤이는 고재현 선수의 손을 잡고 대박의 잔디를 밟았다. 문성은 “관중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대구FC 선수 형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얼굴에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축구는 하지만 했었는데 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지윤이도 고재현 선수의 손을 잡고 밝은 모습으로 경기장을 밟았다. 김동국 엔젤은 “대구시민이자 축구를 사랑하는 1인으로서 봉사의 선두에 설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시민들과 기업의 후원으로 대구FC가 더욱 강해지고 축구라는 스포츠로 대구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에스코트는 처음이라... 그래도 좋아 좋아!

— 조태근 엔젤의 딸 지우의 남다른 추억

아이들 '좋은 추억' 축구 더 좋아하는 계기 돼

— 김보성 엔젤 딸과 아들의 축구사랑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김보성 엔젤도 아빠로서, 또 엔젤로서 뿌듯한 시간이었다. 딸 다영이는 “경기장에 선수들과 함께 입장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라고 했고, 아들 동욱이는 “TV로 보던 선수들을 직접 만나니까 신기했어요.”라며 즐거워했다. 엔젤 FC에 가입 축구도 열심히 하는 김보성 엔젤은 “아이들이 축구를 더 재미있어 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축구를 통해 가족들이 더 행복한 날들을 보내도록 아빠로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태근 엔젤의 귀염둥이 딸 지우도 플레이에스코트가 됐다. 대구FC 올해 유니폼을 예쁘게 차려입은 지우는 “에스코트 키즈에 당첨되어서 너무 신났습니다. 직접 선수들을 보니까 긴장도 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홍철 선수의 손 잡고 입장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상대팀의 김영권 선수랑 입장했지 뭐예요. 그래도 너무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라며 당사를 소환했다. 조태근 엔젤도 이런 기회를 준 대구FC와 엔젤클럽 사무국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생각만 했던 플레이에스코트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기뻐

— 최주열 엔젤 공지 뜨자마자 신청



다둥이 아빠로 관심을 모았던 최주열 가족도 플레이에스코트에 참여해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플레이에스코트 공지가 나오자 최주열 엔젤은 바로 신청했다. “아이가 다섯 명이나 있어서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저런 기회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늘 생각 했었죠. 엔젤클럽에서 기회를 만들어 줘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라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공을 만지다가, 아침에 눈뜨면 바로 축구공을 발로 건드리는 넷째 시호가 플레이 에스코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너무 기뻐했습니다”라며 “시호는 원정팀 선수와 손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선수가 골을 넣자, ‘아빠 저 사람이야!’라고 알아차렸죠.”라며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최주열 가족은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엔젤클럽과 대구FC, 그리고 이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해준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홍철의 날’ 홍철과 함께 이제 손흥민보다 홍철

— 강정영 엔젤 외사촌 조카 가족 초대

강정영 엔젤은 조카네 가족에게 플레이에스코트의 기회를 주었다. 조카의 아들인 7살 승주에게 에스코트키즈는 정말 대박 축복이었다고 한다. 강정영 엔젤은 “그날은 홍철 선수의 날이었는데 마침 승주가 손잡고 들어간 선수가 홍철 선수였어요. 승주는 공차기를 매우 좋아하지만 아직 어려서 이름을 아는 축구선수는 손흥민 뿐이었는데, 이제 홍철 선수 한 명 더 생겼어요”라며 기뻐했다. 실제로 승주는 이날 경기가 시작 되자마자 자신이 손을 잡고 입장한 홍철 선수를 알아보고, 경기 내내 응원했다고 한다. 강정영 엔젤은 “조카 내외에게 물어보니 그날 받은 홍철 선수의 카드를 보물상자에 넣어서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잔디 위에 걸어가 는 승주를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도 반짝반짝 빛났을 거예요.”라고 덧붙였다. 조카 내외는 엔젤의 가족이란 게 참 고맙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다는 말과 함께 대구FC 파이팅!! 엔젤클럽 최고!!!를 외쳤다.



Photo by 대구FC

다시 대박으로!
쿵쿵 골~ 대~구! 함성소리가 돌아왔다

코로나 방역수칙 완화 육성 응원 가능

엔젤, 축구팬의 귀환 그래도 개인방역은 철저하게

지난 6월 21일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박)의 여름 밤, 경기 종료를 앞두고 뜨거운 함성이 터졌다. 조진우가 세징야의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 골망을 갈랐다. 축구경기의 꽃이라고 하는 '극장골'이 터졌다. 상승세를 달리며 2위에 오른 제주유나이티드 FC에게는 패배를, 대구FC에게는 승리를 확정짓는 순간. 대박의 모든 관중들은 저마다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승리를 만끽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할 수 없었던 기쁨의 표시였다.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대박에도 함성소리가 돌아온 것이다.

대박은 지난 2019년 3월 개장 이후, 새로운 도심 경기장의 분위기를 만들며 전국적으로 축구문화를 주도해왔다. 그해에만 9차례의 매진을 기록하며 1만 관중 시대를 여는 등 새로운 축구성지로 떠올랐다. 다른 팀의 축구팬들도 원정을 오면서 대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그들에게 대구의 먹거리, 관광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축구가 어떻게 '도시'를 변하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대박의 함성 소리도 사라졌다. 경기가 열려도 무관중이었다. 관중들의 열정이 가득했던 대박에는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다.

엔젤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였다. 거리에 '힘내라 대구경북!' 현수막을 걸고 코로나 극복에 나서는 한편 대구FC에 대한 후원도 잊지 않았다. 무관중으로 열린 경기에서는 깃발 1만장을 만들어 대구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 퍼포먼스로 대구FC선수들을 응원했다. 대구시민들을 응원해준 전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도 담았다. 무관중 경기였지만, 시민들의 응원을 담은 깃발이 대박에 나뒹꼈다. 언젠가 이 깃발들은 대구시민의 손에 쥐어져 대박을 다시 가득 메울 것이다.

무관중 경기에 이어 일부 관중이 입장했지만, 함성은 불가능했고, 응원에 대한 갈증은 여전했다. 마침내 코로나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지난 4월부터 육성 응원도 가능하게 됐다. 영원히 듣지 못할 것 같은 함성소리가 대박에 돌아왔다. 이제 엔젤들은 경기장 내에서 마음껏 응원하고, 소리 높여 대구를 외친다. 다시 찾은 대박의 일상은 예전과는 다르다. 코로나로 인해 함성이 금지된 시절이 있었기에 응원의 목소리는 한층 높고, 소중했다.

때마침 6월 21일 제주와의 경기에서 극장골이 터졌다. 분위기는 정점으로 치솟았다. 엔젤들은 그 극점에 있었다. 대박을 다시 찾은 엔젤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



극장골이 터진 순간,
대박에는 다시 함성이 가득했다

김재우 엔젤 아저씨즈

엔젤 덕분에 시니어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그만큼 엔젤로서의 자부심을 잊지 않고 있다. 회사일과 모델일을 병행하는 만큼 바쁘지만, 경기가 열리면 될 수 있는대로 대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대박에 오지 못한 때가 있었던 만큼, 요즘은 홈경기를 가급적 놓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경기장에 나오면 스트레스가 완전 풀리고 삶의 활력을 느낀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동안 마음대로 경기장에 오지 못해 안타까웠다. 모두들 바쁘겠지만, 다시 대박이 열린 만큼 조금만 시간이 내면 인생도 즐거워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만큼 축구를 더 알게 되고, 엔젤클럽에 대한 소속감도 커졌다. 오늘도 중요한 약속을 미루고 왔다. 그랬더니 대구FC가 극장골이란 선물을 줬다. 기쁨이 두 배다. 이제는 그냥 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



박혜영 엔젤

‘쿵쿵 골’을 하면서 응원을 하니, 지난 2019년이 생각난다. 대구스타디움의 텅빈 공간에서 응원했던 우리들에게 대박은 남다른 공간이었다. 축구에 대한 애정을 더 갖게 만든 곳이었다. 개장할 때부터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다.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또 관중석에서 파란 잔디를 보고, 이렇게 소리쳐 대구를 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맙다. 지난 시절에는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이토록 소중한지 몰랐다. 요즘 우리에게 축구, 그리고 대구FC, 대박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축구는 즐거움이고 소풍이다.



김상덕 엔젤 부경TS

다시 대박에서 육성으로 응원하고부터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동안 가슴 속에 쌓인 것들이 많았다. 서포터즈의 응원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 더 흥이 나고, 엔젤들의 얼굴도 대박에서 보니 더 반갑다. 아쉬운 것은 코로나 여파로 경기장을 찾는 엔젤들이 다소 줄었다는 것이다. 2019년 대박이 한창 인기가 높을 때는 엔젤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앞으로 더 많은 엔젤들이 경기장을 찾아 함께 응원하고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마스크 끼고, 응원도구로만 응원했는데 육성으로 할 수 있어 너무 좋다. 비교가 안 된다. 같이 나와서 목청 높여서 응원했으면 좋겠다.



김상수 엔젤 히아브하나(주)

엔젤이 되고부터 축구를 새롭게 보게 됐다. 무엇보다 평소애 가까운 이들과 함께여서 좋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자주 경기장을 찾지 못해 안타까움이 많았다. 한 때는 다시 대박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하던 때도 있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지나 우리는 다시 대박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됐다. 경기장에 들어오고, 좌석에 앉아 그라운드를 보고,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을 부르고, 골을 넣을 때 마음껏 소리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다. 물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축구는 맘껏 즐기되, 필요시에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김진성 엔젤 푸르덴셜생명

시원하게 골도 좀 넣고, 큰소리로 응원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오늘 경기 종료 전에 골을 넣어 마음껏 합성을 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다시 한번 더 느끼는 짜릿함이지만, 직접 경기장에서 합성을 지르고 응원하면서, 선수들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힘내 승리할 수 있도록, 12번째 엔젤선수로서 더욱 뜨겁게 쿵쿵 골로 응원할것을 다짐해본다.



신인철 엔젤 신안통상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경기장에 오지 못했고, 또 입장이 가능할 때도 경기장 내에서 육성으로 응원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요즘은 그때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합성을 지르고 마음껏 응원할 수 있어 좋다. 원정까지 다니며 축구를 즐기고 있다. 경기장을 다시 찾으면서 대구FC와 엔젤클럽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관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적을 때와 많을 때 차이가 있다. 관중이 많을 때 선수들도 힘이 더 난다. 관중들도 더 즐겁다. 코로나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됐다. 관중과 엔젤들과 함께 느끼니 더 좋다.



심인철 엔젤 동명테크윈(주)

코로나 확산으로 아무래도 대박과 거리가 멀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엔젤들이 변함없이 대구FC를 사랑하고 후원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대박에 모이니 기쁨도 두 배다. 무엇보다 엔젤들과 다시 경기장에서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돼 좋다. 밖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대박에서 엔젤들을 보는 것은 또다른 기분이 든다. 오늘도 늘 밖에서 보던 분들과 경기장 내에서 만나게 돼 새로운 느낌이 든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돌아온 영웅들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되는 대로 경기장을 자주 찾겠다.



양종호 엔젤 현대자동차

TV나 영상으로 대구FC 경기를 보는 것도 좋지 만, 아무래도 축구는 현장에서 봐야 제맛이다. 그 맛을 요즘 실감한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장을 찾지 못했을 때는 가끔 영상으로 보면서 혼자 흥분해 주위 사람을 놀라게 한 적도 있다. 또 경기장에 왔지만, 소리를 지르지 못해 생가슴을 앓던 적도 있었다. 지금은 대박을 찾아 마음 놓고 흥분한다. 골이 들어가면 마음껏 합성을 지른다. 오늘도 경기 막판에 골을 넣으면서 눈치 안보고 마음껏 환호했다. 이 맛이다. 이것이 대박의 즐거움이다.



김주성 엔젤 광개토병원

코로나 여부와 관계없이 대구FC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다. 마음 속으로 늘 응원해 왔고, 이처럼 경기장에서 다시 선수들을 볼 날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그런 기다림 때문인지, 대박에서 실제로 보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에 여러 감정이 실린다. 그들이 열정적으로 뛰는 모습, 골을 넣었을 때 환호하는 표정, 가끔 잔디밭에 쓰러진 안쓰러운 몸짓들이 마치 영화장면 같이 느껴진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는 예전의 엔젤이 아니다. 더 깊이, 더 진심으로 대구FC를 응원하고 대구를 사랑하게 된 것 같다. 스포츠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스포츠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좀 더 성숙해졌다고 할까! 축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는 요즘이다.



※ 이 기사는 2022년 6월 21일 대박에서 열린 경기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대구FC엔젤클럽회장배친선축구대회 3년 만에 열려 6개 팀 참여, 친선 도모 대구FC 후원 한 목소리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대구FC엔젤클럽회장배 친선축구대회(이하 엔젤축구대회)가 3년 만에 열렸다.

2022년 5월 28일(토) 대구강변축구장 천연1구장에서 달서구여성축구단(단장 최경애, 감독 박성수), 대구건축사회축구단(단장 오은도, 감독 정준우), 대구변호사회축구단(단장 김진형, 감독 이도영), 대구시청축구단(부단장 천정원, 감독 이주익), 세신버팔로축구단(단장 최상욱, 감독 하인홍), 엔젤FC(단장 조병래, 감독 안상영)(가나다 순) 등 6개 팀이 A, B조로 나눠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은 “코로나를 아직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좋은 계절에 함께 모여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땀방울을 흘릴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예전에는 미처 모르고 살아왔던 소소한 일상 속의 소중함, 그리고 함께 운동장에서 땀 수 있었던 평범함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까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고 대회 개최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아울러 “대구FC엔젤클럽은 축구사랑을 통해 대구사랑을 실천하는 시민 모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구FC를 후원해달라”고 부탁했다.

대회를 준비한 정소영 대구FC엔젤클럽 상임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축구공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우리는 축구공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됐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 가깝고 편안한 좋은 친구가 되자.”고 축구

를 통한 친선을 강조했다.

대구FC 경기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조광래 대구FC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대구FC를 사랑하고 나아가 축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엔젤클럽 회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축구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엔젤회원간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엔젤클럽의 원만한 대외활동을 위해 구단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는 A조에 대구변호사회, 달서구여성축구단, 엔젤FC 3팀, 그리고 B조에 대구건축사회, 대구시청, 세신버팔로팀 3팀 등 모두 6개 팀이 우승을 놓고 경쟁했다. 결과는 이번엔 처음으로 대회에 참여한 크레텍의 세신버팔로가 우승을 차지했고, 엔젤FC가 준우승, 3위는 대구시청팀 순이었다. 페어플레이상은 대구변호사회팀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대구FC가 운동장과 경기용 볼 등을 지원했으며 이기백 대구축구협회 심판이사 등 협회 소속 심판들이 자원봉사를 했다. 엔젤축구대회는 엔젤회원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8년 첫대회와 이듬해인 2019년 개최됐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이호경 회장은 “앞으로 대회 참여팀들이 보다 편하게 경기에 참여하고 가족들도 참여해서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스티스는 2000년 4월 대구변호사회에서 주도하여 창단되었으며,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가 구성원인 축구단이다. 월1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법원소속과 친선축구경기를 하고 있다.



대구변호사회 축구단

세신버팔로 축구단



세신버팔로축구단은 크레텍(크레텍책임, 크레텍웰딩)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축구 동호회로, 직원 상호 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위해 1995년 10월 결성되었다.

대구시청축구단은 1985년 대구시청 직원 15여 명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통해 체력과 우의를 다지자는 취지로 결성하여 현재 회원은 30여 명으로 출범 당시보다 배이상 늘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대구시 환경자원사업소 축구장에서 연습경기를 하며 체력을 다지고 있으며, 연습경기 상대팀은 지역의 다른 공무원 축구팀이나 지역 축구 동호회 등이다.

대구시청축구단은 그동안 대구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친선 축구대회, 달빛동맹의 일환으로 광주시 축구단과 교류전, 안동으로 이사를 간 경북도와 상생협력 차원에서 교류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회 입상 경력은 2016년 제16회 전국시도 공무원 축구대회 준우승 등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대구시청 축구단



여성들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육성하고 여가생활과 여성축구의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2002년 창단된 후 여러차례 전국대회에 입상을 하며 최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3위, 대전시장기 전국여성축구대회 3위, 제주만덕배 전국여성축구대회 준우승 등 각종대회에서 입상을 거두며, 20대~5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달서구의 위상과 여성축구 발전에 기여하는 팀이다.

달서구청 여성축구단



대구건축사회 축구단



2005년 대구건축사회 축구동호회로 창단했다. 현재 건축사는 정회원 80명, 특별회원 10명 등 90명 정도이며 매주 주말마다 40여 명이 꾸준히 운동한다. 엔젤로 활동 중인 회원도 많으며 시민구단 대구FC 경기가 열리는 대박에 많은 회원들이 찾아 선수들을 응원한다. 제12회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 등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2018년 대구FC엔젤클럽회장배친선축구대회에서도 우승을 했다.

엔젤FC



대구FC를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창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축구경기를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고, 이와 함께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김양인 달서구 여성축구단 코치

대회 첫 참가, 초청 받아 감사

오랜만에 사람들과 공을 차는 게 즐거웠다. 팀내 동료와 언니들도 오랜만에 모였다. 즐겁고 좋은 경험이었다. 대구FC를 후원하는 엔젤클럽은 의미있는 단체다.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축구는 여성들에게도 좋다. 여성이 접하기 어려운 종목이어서 더 매력적이다. 네트가 있는 경기가 아니라, 직접 몸을 부딪치며,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좋다. 훈련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정도 한다. 20대부터 60대로 구성돼 있고, 대부분 직장생활을 한다. 축구가 좋아서 운동장에 나온다. 건강과 미모에도 도움이 된다. 대구FC가 더 많은 시민들의 응원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선수들도 부상 당하지 말기를 바란다.



천정원 대구시청축구단 부단장

다시 대회 참여할 수 있어 너무 기뻐

다시 엔젤클럽 축구대회에 참여해서 너무 기쁘고 여러 팀과 교류할 수 있어 좋다. 엔젤클럽은 시민구단 대구FC를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등 평상시에도 좋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대회 팀들도 확대됐으면 하고, 젊은 층에서 많이 참석하여 연령별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대구시청팀은 회원 60명 정도며 매주 토요일 20명 정도가 나와서 연습경기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엔젤축구대회에 참가해서 대회가 좀 더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은도 대구건축사회 축구단장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

코로나 영향으로 모든 대회 참가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풀려 다행이다. 엔젤축구대회에는 초대 대회에 건축사팀이 우승할 정도로 인연이 깊다. 얼마 전에 건축사 축구대회를 참가해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웠을 텐데도 최선을 다해 줘서 감사하다. 현재 건축사는 정회원 80명, 특별회원 10명 등 90명 정도 매주 주말마다 운동한다.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은 40명 정도로 축구를 사랑한다. 시민구단인 대구FC경기 관람도 자주 한다. 특히, 회원 중에 엔젤들이 많다. 언제나 엔젤과 같은 마음이다. 대구FC가 올해 더 좋은 성적을 내기를 간절히 응원한다. 앞으로도 대회에 적극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가 더 발전해서 연령별로도 경기를 치렀으면 좋겠다.



조병래 엔젤FC 단장

앞으로 더 좋은 대회 위해 노력할 것

코로나가 아직 완전 종식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함께 만나 서로 맘을 흘린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엔젤축구대회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물론, 2년만에 하니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 어색한 부분도 있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했는데 선수들 기다리는 장소가 협소해서 좀 아쉽다. 선수들이 아침부터 운동장에 나와 장시간 동안 머무는 만큼, 대기하는데 좀 더 편한 공간을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기회가 되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치르고, 참가 선수의 연령 등도 잘 조정해서 보다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엔젤FC 역시 자주 만나 발을 맞춰 좀 더 완성된 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김진형 대구변호사회축구단(저스티스) 단장

첫 대회부터 매년 참석

이번 대회 개최에 힘쓴 엔젤클럽 이호경회장님과 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첫 대회부터 매년 참석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것 같다. 앞으로 대구에서 손꼽히는 친선축구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오월의 시원한 바람과 한 낮의 뜨거움을 만끽했다. 참가한 축구동호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소한 행복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무척이나 즐거운 하루였다. 축구를 사랑하는 엔젤클럽 회원들의 꺼지지 않는 열정을 느끼게 되어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대회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최상욱 세신버팔로 축구단 단장

대회 첫 참가, 초청 받아 감사

엔젤축구대회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기쁘다. 이전에 대구FC에서 주최한 풋살대회에는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엔젤축구대회는 처음이다. 항상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마침 최영수 크레텍 회장님이 다이아몬드 엔젤에 가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에도 회사 차원에서 대구FC 후원을 해왔다.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 회사가 대구FC를 후원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롭다. 세신버팔로 축구팀은 축구를 좋아하는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연습은 매주 금요일 DGB 대구은행파크 옆의 대구FC유소년축구센터에서 오후 8시부터 3시간 정도 공을 차고 있다. 단장은 좌측 윙백, 그리고 골키퍼로도 뛰지만 축구단 활동 사진과 소식을 밴드에 올리고 있어 오늘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회이모저모

이번 대회는 대구시축구협회 소속 심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 대회가 빛났다. 아들과 함께 경기장에 온 엔젤, 그리고 선수들의 멋진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엔젤 등 축구를 통해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모처럼 한데 모인 축구인들의 표정을 모아 봤다.(편집자 주)



엔젤클럽 축구대회 지원 당연한 일 지역 축구발전에 도움 돼 '보람'

이기백 대구축구협회 심판이사

“지역 축구동호인들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대구FC엔젤클럽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봉사차원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심판진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이기백 대구축구협회 심판이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표정이었다. 이 이사는 “심판과 관련해서 최태원 엔젤(대구풋살연맹 회장)의 요청을 받고 협회 내 심판들에게 엔젤축구대회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의견을 물었더니, 여러 심판들이 흔쾌히 자원했다”며 “휴일인데도 시간을 내서 봉사해준 협회 심판들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실제로 이날 대회는 협회 심판들의 봉사로 원만하게 진행됐다. 엔젤클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사는 “엔젤클럽은 지역 축구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엔젤클럽 축구대회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생동감 있는 선수들 표정을 잡아라!

이지영 엔젤

엔시오로 활동하다 엔젤이 된 이지영 엔젤은 요즘 맹활약 중이다. 경기장이면 경기장, 원정이면 원정, 행사장이면 행사, 빠지지 않는다. 이날도 축구대회를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그녀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다. “축구가 좋아, 구경나왔다. 나온 김에 선수들의 사진을 맘껏 담았다. 축구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직접 나오니 좋다. 천연잔디 구장을 이렇게 많이 밟아 본 건 처음이다. 직접 밟아보니 촉감이 너무 좋다. 오늘의 사진 및 영상 포인트는 경기장면, 멋진 순간, 그리고 재미있는 장면이다. 엔젤FC만 아니라 참가 팀 모두가 대상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 괜찮은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다. 모두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치기를 바란다.”



우리 엔젤 아빠 최고!

문홍국 엔젤 아들 '정환'이의 즐거운 하루

영국에서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축구장에 가고, 아들이 생기면 아들의 손을 잡고 경기장에 가는 것이 남자의 꿈이라고 했다. 문홍국 엔젤은 축구장은 물론 자신이 직접 공을 차는 운동장에 아들의 손을 잡고 나왔다. “아들하고 같이 나오니 너무 좋다. 날씨도 기분도 다 좋다.”는 문홍국 엔젤은 아들 정환이와 함께 아이스크림도 먹고, 운동장도 뛰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정환이는 “우리 아빠는 멋있고 축구도 잘한다. 좋아하는 선수도 ‘아빠’다”며 아빠와 함께여서 즐겁다고 했다. 엔젤FC 선수들의 경기도 보고, 때로는 선수들과 패스를 주고받기도 했다. 선수들의 마스크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체 사진 촬영은 물론 준우승 트로피를 들고 한참이나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대구FC 선수 중에는 세징야를 좋아한다는 정환이에게 오늘 하루는 아빠, 그리고 축구천사와 함께 한 뜻 깊은 하루였을 것이다.



모태엔젤 주안이의 성장일기

건강하고 훌륭한 엔젤로 키우겠습니다



지난호 표지에 실려 많은 사람들을 흐뭇하게 한 모태엔젤 주안이는 무럭 무럭 잘 자라고 있다. 지난 6월 11일은 바로 주안의 돌이다. 어느새 걸음 마를 시작했을 것이다. 세계 스포츠사에 있을까 말까 한 모태엔젤 주안이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엔젤로 태어난 축구천사의 역사요, 엔젤의 전설이 될 것이다. 엔젤들의 축복 속에 태어난 만큼, 주안이는 이원재 엔젤과 우순월 엔시오의 천사가 아니라 엔젤의 아이로 자란다. 앞으로 엔젤클럽매거진에서는 주안이의 성장기를 연재할 계획이다. 천상엔젤 주안이의 육아를 위해 두문불출하고 있는 이원재 우순월 엔젤엔시오 부부의 육아 일기를 들어 본다.

주안이 첫 돌! 엔젤클럽 케이크 선물 감사

요즘 주안이 즐겁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공차는 재미에 폭 빠져서 발에 피가 날 정도입니다^^. 주안이기도 엔젤인지만, 대구FC의 경기를 보여주고 싶지만, 가끔적이면 영상 매체는 늦게 접하게 하고 싶어 참고 있습니다. 대신, 집안 곳곳에 대구FC 사인볼, 머플러, 리카인형, 대팍모형, 대구FC 머그컵 등을 비치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의식중에 대구FC의 존재를 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마치 구단사무실, 대팍 같은 분위기랍니다 ㅎㅎ 특히, 지난 6월 11일 주안의 돌에는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에서 깜짝 케이크를 보내 가족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유니폼을 입은 주안이란 리카 인형, 그리고 'Happy Birthday Angel'이라는

문구가 얼마나 예쁘던지 정말 뜻밖의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안이의 사진이 새겨진 케이크라 차마 그 부분은 먹거나 자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주안이 부분만 따로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공 차는 재미에 폭 빠진 주안이, 대팍엔 가을 짬 첫 신고

돌이 지나면 대팍에 데려가고 싶었는데, 여름철을 맞아 습하고 기온이 높아 힘들어할 거 같아서 가을짬 경기장에 방문 예정입니다. 정말 기대가 큼니다. 주안이가 대팍을 보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축복해 줄지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많은 훌륭한 엔젤분들처럼 자라준다면 부모로서, 또 엔젤엔시오 부모로서 더 이상의 큰 기쁨이 없겠지요. 돌을 맞은 주안이에 대한 많은 엔젤분들의 진심어린 격려와 축하에 가족 모두가 엔젤클럽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엔젤분들의 바람대로 훌륭한 엔젤로 키우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ㄹ

울금초 4년 박은성 군, 대팍 왔다가 엔젤가입

모태엔젤에 이어 첫 초등생 엔젤 탄생



점점 넓어지는 엔젤의 스펙트럼

지난 7월 3일(일) 대구FC와 수원FC의 하나원큐 K리그 1 경기가 열린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팍)에서 남다른 엔젤가입식이 열렸다. 지금은 태권도를 하고 있지만 축구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축구를 사랑하는 박은성 군(울금초 4학년)이 환한 표정으로 회원증을 들었다. 초등학생 1호 엔젤이다. 모태엔젤에 이은 또 다른 놀라운 일이다. 엔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는 좋은 사례다. 태권소년 은성 군이 대구FC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6월 29일 하나는 행FA컵 8강전이 열린 대팍에서다. 평소 삼촌처럼 지내는 손현구 엔젤과 함께 왔다가 처음 본 대팍과 축구경기에 폭 빠져 버렸다. 당시 은성 군은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위해 응원도 하고 싶고 후원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엔젤에 가입하게 됐다. 이날 은성 군은 이호경 회장을 찾아 엔젤을 대표하는 회장이 맞나며 씩씩하게 다가서서 같이 기념촬영도 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돈이 없으니 지금은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나중에 커서는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서 대구FC를 후원하며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며 지원 요청을 했고, 부모님도 흔쾌히 수락했다. 부모님은 은성이가 축구를 좋아하는 데다 축구사랑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한다는 엔젤의 취지가 너무 좋았다는 것. 어머니 박혜미 씨는 “평소에 활발하고 건강한 은성이가 당당하게 엔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

다. 엔젤 분들처럼 열심히 자기생활에 충실하고 스포츠도 사랑하며 봉사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엔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역시 뜻깊은 경험이며 좋은 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엔젤처럼 훌륭한 사람될 것

은성 군은 씩씩할 뿐만 아니라 인사성도 밝다. 경기가 끝나자 엔젤룸에 들어와서 엔젤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며 회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박혜미 씨는 “어려서부터 은성이를 자유롭게 키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본, 즉 예절을 가장 중요시 했다.”고 말했다. 어려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던 그녀는 은성에게 만큼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주고 싶었지만, 기본 역시 중요하다고 늘 생각했고, 항상 예절과 인사를 강조했다고 한다. 그 덕분인지 은성이는 예절이 있으면서도 활발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자라고 있었다. 은성 군에게 엔젤회원증을 전달한 이호경 회장은 “보기에도 씩씩하고 당당하다. 훌륭하게 잘 자랄 것 같다”며 “초등학생인 은성이가 엔젤이 되면 이 또한 엔젤에서는 큰 경사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엔젤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반가워했다. 아울러 이회장은 “모태엔젤, 초등생엔젤, 영엔젤 등 다양한 엔젤들이 생겨나면서 엔젤이 자체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그야말로 엔젤은 살아 있다.”고 덧붙였다. ㄹ

박영일 엔젤(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조합장)

온가족이 엔젤엔시오, 엔젤 패밀리가 뒀다!



온 가족이 한꺼번에 엔젤엔시오가 뒀다. 한마디로 엔젤 패밀리다. 그동안 한 명 한 명 순차적으로 엔젤과 엔시오가 된 엔젤 가족은 있었지만, 같은 날 함께 가족 구성원 모두 엔젤엔시오로 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인공은 박영일 엔젤(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조합장)가족이다. 지난 7월 DGB대구은행파크 엔젤룸에서는 박영일 엔젤 가족의 엔젤엔시오 가입식이 있었다. 김완준 부회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박영일 엔젤은 시민구단을 후원하는 좋은 일인 만큼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엔젤이 돼야 한다고 보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아빠는 엔젤이 됐고, 아내 한현화 씨에서부터 박범석, 시우, 선우 등 아들 삼형제가 나란히 엔시오가 됐다. 또 하나의 엔젤 스토리가 쓰여진 것이다. 주위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가족이 함께 엔젤에 가입하는 것은 보기에 좋았다. 여가 문화를 같이 즐기고, 뜻있는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가족으로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박에 처음 온 박영일 엔젤은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대박에 와 보니 너무 좋았다”며 “아이들도 직접 축구경기를 본 뒤 대박과 대구FC에 빠져들었다. 언제축구경기가 열리는지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회인 야구를 즐길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는 박영일 엔젤은 “시민운동장이 축구전용경기장으로 바뀐다고 말만 들었을 뿐 직접 와보지 못했는데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야구와 다른 또다른 매력을 느꼈다”며 “특히 대기업 구단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시민구단이라고 생각하니 대구FC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엔젤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아빠와 함께 엔시오(소액 후원엔젤)의 일원으로 엔젤클럽에 가입한 아이들은 축구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특히, 골프를 하는 첫째 범석이는 물론, 평소 정적인 둘째 시우도 다이나믹한 축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영일 엔젤은 “첫째는 활동적이어서 축구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평소 조용한 둘째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할 줄 몰랐다”며 “아이들이 응원뿐만 아니라 직접 축구를 하고 싶어 정도로 축구를 좋아한다. 재능이 있으면 적극 밀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젊은 엔젤들의 모임인 영스카이본부에도 가입한 박영일 엔젤은 “손흥민이 활약하는 영국은 축구하는 날이 바로 축제”라며 “대구FC에서 손흥민 같은 스타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 엔젤의 일원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활동하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41**



대구FC엔젤클럽 4개 본부로 조직확대, 영스카이본부 신설

운영-강병규, 대외협력-정소영, 엔젤-박기원, 영스카이-조승우 상임부회장

대구FC엔젤클럽은 6월 29일 대박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엔젤클럽은 그동안 운영본부, 엔젤본부, 엔시오본부 3개 본부로 구성됐으나, 최근 젊은 엔젤들의 확대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엔시오 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스카이본부를 신설 총 4개 본부로 운영하게 된다. 운영본부는 강병규 상임부회장이, 명칭이 변경된 대외협력본부는 정소영 상임부회장이 그대로 이끌게 되며, 엔젤본부는 박기원 상임이사가 신임 상임부회장을 맡았다. 이번에 신설된 영스카이본부는 조승우 엔젤이 신임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돼 젊은 엔젤과 소통한다. 또한 이날 엔젤천사데이, 송년모임 등 하반기 계획도 수립했다.



이윤희 엔젤, 대구FC 선수들에게 수제햄버거 선물

이윤희 엔젤(존스 버거 들안로점 대표)이 대구FC선수와 코칭스태프를 위하여 수제햄버거를 선물했다. 이윤희 엔젤은 지난 6월 21일 대구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K리그 경기를 치른 선수들뿐만 아니라 2군 선수단과 코치진에게까지 모두 수제햄버거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승리한 대구FC선수들은 “승리와 함께 정성이 가득 담긴 맛있는 햄버거를 잘 먹었다”며 감사했다는 인사를 전해오기도 했다.

《 경기 후 숙소로 이동하는 구단버스에서 선수들이 이윤희 엔젤의 수제햄버거를 먹으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엔젤 친선 골프대회 8월 31일 개최

대구FC엔젤클럽이 8월 31일 경산 인터불고CC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100여 명의 엔젤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친선 도모뿐만 아니라, 지역 축구발전을 위하여 유소년축구팀을 위한 후원금도 마련한다. 엔젤클럽은 대구가 축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구단 대구FC는 물론 지역 꿈나무들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유소년을 위한 후원금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대구FC유소년팀인 현풍고, 율원중, 신흥초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올해도 지역 유소년팀을 위하여 후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엔젤클럽 권영진 대구시장 감사패 전달

대구FC엔젤클럽은 지난 6월 대구FC와 엔젤클럽 성장에 기여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구FC엔젤클럽의 시작부터 함께한 권 시장은 “대구FC가 K리그 다른 구단들과 다른 점은 ‘대구FC엔젤클럽’이 있다는 것”이라며 “대구FC엔젤클럽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다. 퇴임하고 나면 정식으로 대구FC엔젤클럽축구팀에 가입해서 한 회원으로서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은 “대구FC와 대구FC엔젤클럽에 쏟아준 시장님의 큰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정을 다해 대구사랑운동을 펼쳐나갈 것.”고 약속했다.



엔젤클럽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FC엔젤클럽은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지난 6월 대구·청도 레저 스포츠 경기 활성화 및 상호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내용은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 및 홍보 활동, 상호 운영시설 이용 시 혜택 부여, 협력관계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협조 등이다. 박진우 공사 사장은 “스포츠를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단체와 함께 하게돼 고맙고 기쁘다”며 “앞으로 청도소싸움경기장 및 청도자연휴양림 등 지역 관광지에 1,500여 명의 대구FC엔젤클럽 회원들이 자주 방문하면 청도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FC엔젤클럽의 뿌리_ 5년 엔젤

5년 엔젤! 엔젤클럽 정착의 증표 시간 지날수록 5년 엔젤도 늘어

시간이 지나면서 '5년 엔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젤클럽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실시해온 '5년 엔젤 특집'은 엔젤클럽 개척사에 다름 아닙니다. 엔젤클럽 출범할 당시만 해도 지역 축구문화는 적박했습니다. 시민구단 대구FC는 하위권을 전전하다 급기야 2부 리그로 떨어졌고, 시민들은 '시민구단'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최악 조건에서 출범한 엔젤클럽, '5년 엔젤'은 100년의 약속

엔젤클럽은 그런 악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범 초기만 해도 '1~2년 하다 말겠지' 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의미는 큼니다. 5년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엔젤클럽 전체의 미래를 점칠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최근 5년 엔젤들이 쏟아지면서 초기 우려는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8년 엔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조만간 10년 엔젤의 탄생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년 엔젤의 탄생은 곧 100년 엔젤을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렸던 100년 엔젤이 그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5년 엔젤, 다 소개 못해 아쉬움 가득... 앞으로도 감동엔젤 찾아 나설 것

그동안 매거진에서 5년 엔젤들을 모두 담으려 했으나 소개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조용히 후원만 하겠다'고 하시며 고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거진에 게재한 분들도 수차례의 설득과 회유 및 강요(?)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거진에 5년 엔젤을 지속적으로 소개한 것은 그것이 바로 '시민정신'이요 '대구사랑'의 구체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5년 엔젤 특집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엔젤클럽 매거진은 감동의 엔젤들을 꾸준히 찾아 나설 것입니다. '위대한 대구정신'의 상징인 '엔젤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엔젤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4

Q 대구FC엔젤클럽의 뿌리_ 5년 엔젤에게 물어봤습니다~

1.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힘들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소회가 어떠신지요?
2. 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이어가고 있으신지요?
3. 엔젤클럽의 출범으로 시민구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민구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관심을 두고 있는 선수가 있으시다면?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구FC는 시민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시민구단

강신일 엔젤 대영에코건설(주) 사장



1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건강적인 부분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면역'이지요. 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면역력을 높여 건강하고 즐겁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이호경 회장의 추천으로 엔젤이 되었지만, 앞에서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후원과 함께 클럽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집행부의 엔젤님들을 보면 송구스런 마음도 있지만, 묵묵히 뒤에서 후원하는 것도 시티즌오블리주 실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뒤에서 시민구단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 처음에 엔젤클럽이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시민구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 엔젤클럽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아요. 엔젤클럽 혼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정부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구단은 이처럼 특정 기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성장해가는 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시민구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MF 이용래 선수

4 고참 선수로 자신의 몫을 다하는 이용래 선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코치로 입단했다고 하는데 선수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부상 없이 시즌을 잘 소화하기를 바랍니다.

엔젤클럽은 시민구단 성공의 마중물

공윤욱 엔젤 울성회계법인(경영학박사/대구보건대학교 겸임교수)



1 마스크를 벗고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지만 사회·경제적 피해와 영업시설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더욱 사회·경제적인 부문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제가 가진 작은 마음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민과 대구FC가 함께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작은 마음을 나눔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엔젤클럽 회원을 재정비해서 자발적 참여를 하는 회원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FW 세징야 선수

4 우리나라 귀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세징야 선수를 응원합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대구FC에서 7년동안 뛰었던 세징야 선수 경기는 참관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 엔젤 기억해 보람 느껴

김강수 엔젤 KB라이프생명(푸르덴셜)Executive Life Planner



- 1 주로 사람을 만나서 대면 영업을 하는 저는 적잖은 기간 동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 왔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최근에 엔젤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어요.
- 2 관심을 가질수록 구단과 선수들이 힘내줘서 보람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엔젤석으로 와서 인사를 해주는 선수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엔젤을 기억하는 모습이라서 더욱 좋았구요. 꾸준히 사랑하며 후원할 생각입니다.
- 3 순수한 축구사랑이 먼저인 듯 싶습니다. '시민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구지역 출신 선수들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도록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해주는 마음이지요.



DF 홍철 선수

- 4 국제경기에서 반칙으로 인스타를 통해 해명을 듣게 되었던 홍철 선수입니다. 아픔을 딛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홍철 화이팅!!

명문클럽 대구FC 위해 작은 보탬

김성렬 엔젤 (주)대성건업 대표이사



- 1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조직이 없어지고 삶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계획과 마음가짐을 새로이 가지는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 다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 2 저는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주택아파트 도장공사와 방수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5년전 엔젤클럽 이호경 회장님의 인연으로 벌써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대구FC가 훌륭한 명문클럽으로 성장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3 시민구단은 어느 한 단체나 조직의 지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의 모든 공적, 사적 구성원들의 응원과 지원의 받침으로 지역내 유소년축구단에서부터 프로축구단까지 축구사랑을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엔젤의 전사는 강하다

- 4 축구는 단체경기이므로 대구FC 모든 선수들이 최고가 되어 진정한 최고의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와! 벌써 5년’ 남다른 보람 느껴

김성열 엔젤 아나식품 대표



- 1 식품업계도 코로나 발생으로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인 사단법인 대구식품협회를 창립하여 많은 연구개발을 거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우리는 좀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 2 와! 제가 벌써 5년을 엔젤과 함께 했군요. 제자신이 대견합니다. 엔젤출범 후 대구FC가 더 발전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보람도 느끼고, 엔젤로서 자부심도 생깁니다. 앞으로도 대구축구 발전 더 나아가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 축구사랑을 통해 대구사랑을 실천한다는 엔젤클럽의 정신이 바로 시민구단의 기본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창단된 것은 물론 시민들의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구단의 모습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엔젤에 동참해 대구사랑 정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GK 오승훈 선수

- 4 올해 입단해 신들린 방어를 하고 있는 골키퍼 오승훈 선수의 선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부상 없이 무사히 시즌을 마치고 좀 더 오랫동안 대구FC의 골문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역 사회 순수 후원문화에 동참

김성준 엔젤 지엔비모터스(주) 대표



- 1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이 지난 2년 이상의 시간을 삼켜 버린 것 같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더불어 함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새삼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 2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개인적 성향과 지역 사회에서 훌륭하신 분들의 순수한 후원 문화에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을 보태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FC의 연승을 응원하며, 더욱 많은 분들의 후원 또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3 국내에서는 선구자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구시민의 삶 속에서 일상의 관심과 때로는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스포츠 구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DF 정태욱 선수

- 4 정태욱 선수를 응원합니다. 우리 대구FC 구단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며 아시아 게임에서 '전천후 선수'의 역할에 매료되었습니다.

엔젤클럽, 국채보상운동과 2.28 잇는 대구정신

김영채 엔젤 안경회계법인 회장



- 1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 이후 최악의 팬데믹을 맞아 살아 남았다는 안도감에 '휴우' 한 숨을 쉽니다. 인간이 자기 본분을 잊어 버리고 망동을 일삼을 때 하늘의 질책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2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 온 이후 대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차에 대구 FC엔젤클럽을 만났습니다. 대구의 정신은 국채보상운동과 2.28 정신이 말해 주듯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엔젤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 3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의 축구 경기에서 보듯이 축구는 시민을 하나로 묶어 주는 끈입니다. 더구나 대구FC는 스폰서가 따로 없이 시민이 주인인 관계로 더욱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애향심의 발로가 바로 대구FC사랑입니다.



FW 고재현 선수

- 4 고재현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큼니다. 대문고를 졸업하고 입단한 고재현 선수는 골문 앞에서 탁월한 위치 선정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요. 대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사진설명

- 01 홈 경기 뒷풀이에서 승리의 건배와 축하!
- 02 동유회(同有會) 송년회에서 부인과 함께
- 03 실리콘밸리에서 유니콘기업 센드버드를 운영하는 아들 김동신 대표를 방문하고 격려함

주주정신 되살려야 진정한 시민구단 발돋움

김완준 엔젤 (주)JID 대표이사



- 1 길고 긴 터널 같았던 코로나19가 끝나가나 했는데,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웠지만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무실을 대구 남구 이천동으로 옮기는 등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새로운 발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2 김충환 엔젤의 추천으로 엔젤에 가입하게 됐는데 어느덧 6년이나 됐습니다. 축구부가 있던 학교를 다닌 터라 축구가 갖고 있는 감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사랑'이 '대구사랑'이라는 취지가 너무 좋아서 엔젤이 되었지요. 시민으로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엔젤로서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 3 대구FC를 창단할 당시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더군다나 주주동산을 설계하고 함께 시공한 만큼 시민구단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이러한 주주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 주주의 이름이 새겨진 주주동산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시민정신과 혼이 담긴 상징물입니다. 선수들 역시 이런 시민정신을 이해하고 경기에 임할 때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F 이진용 선수

- 4 실력도 중요하지만, 시민구단의 정서를 이해하고 팬들에게 다가가는 선수에게 더 애정이 갑니다.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중원에서 열심히 뛰는 대구 FC 유스출신 이진용 선수를 응원합니다.

시민의 힘 뭉친 대구FC, 쉽게 무너지지 않아

김종선 엔젤 세광종합상사 대표



- 1 코로나 시기를 맞아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한 발 더 열심히 뛰어나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엔젤 여러분을 비롯하여 모든 대구시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되면서 마스크 벗고 응원했는데, 다시 늘어나서 조금 걱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잘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 2 저는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들지만, 묵묵히 할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엔젤로서 또 대구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 '시민구단'이라는 이름이 그렇듯이 소수보다는 시민 한분 한분, 엔젤 한명 한명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진정한 시민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힘이 모인 구단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대구FC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DF 정태욱 선수

- 4 선수 하나하나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특정 선수를 들고 싶지 않으나 굳이 들어야 한다면 언제나 든든한 정태욱 선수입니다. 부상 없이 앞으로 더 좋은 활약 기대합니다.

공직자의 소명으로 엔젤가입, '감동 두 배'

김형동 엔젤



- 1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어서 기쁩니다. 다시 재확산 조짐이 있지만,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함께한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스포츠 관전도 힘찬 응원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대구FC 경기 관람의 즐거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 제가 대구시 체육진흥과장으로 재직할 때 엔젤회원들은 "축구는 대구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축구사랑으로 대구FC 성장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엔젤클럽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공직자로서 작은 것이라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엔젤클럽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후원을 하고 있으며, 변함없이 후원할 생각입니다.
- 3 시민구단은 열악한 재정으로 기업구단과 경쟁해서 상위권 성적을 내기가 어려운 현실임에도 대구FC는 기업구단과 경쟁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엔젤클럽의 재정적·정신적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대구FC가 좋은 성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수환구조를 만들어 명문구단으로 성장한다면 좋은 경기장과 함께 진정한 시민구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DF 정태욱 선수

- 4 큰 키에서 내려찍는 헤더의 위력과 전방으로 날리는 롱킥의 묘미, 몸을 사리지 않는 든든한 수비력을 갖춘 정태욱 선수가 부상 없이 대구FC와 통령을 했으면 합니다. 정태욱 화이팅!!!

시민과 소통하는 진정한 시민구단 기대

박승환 엔젤 (주)처갓집양념치킨



- 1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여러 행사를 통하여 더욱 소통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 대구 시민들이 대구FC를 통하여 축구라는 콘텐츠로 하나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더욱 발전하는 대구와 대구FC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3 시민과 소통하는 프로축구단이 진정한 시민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구단은 축구라는 콘텐츠로 대구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교두보라고 생각합니다.



FW 세징야 선수

- 4 대구FC의 프랜차이즈 스타, 세징야 선수! 축구와 귀화 준비를 병행하는 와중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모습이 멋집니다. 대구FC 레전드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등에 지면 짐, 가슴에 안으면 사랑

서태현 엔젤 (주)산동개발 대표



- 1 요즘 다시 코로나가 재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항상 건강과 방역을 생활화하여 과거처럼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 2 예전에 엔젤모임에서 '등에 지면 짐/가슴에 안으면 사랑'이라는 깃구를 응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힘들었던 시민구단 대구FC를 짐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슴으로 안은 게 엔젤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후원할 생각입니다.
- 3 '시민구단'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구단이며, 시민의 힘을 상징합니다. 성적이 뛰어나면 좋겠지만 성적에 관계없이 시민과 엔젤들이 후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및 구단 역시 항상 시민과 엔젤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민구단'입니다.



FW 정치인 선수

- 4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 선수를 늘 눈여겨보고 있어요. 가능성은 많은 것 같은데, 골을 넣지 못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고비만 넘기면 대성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선수를 응원합니다.

‘우리들의 축구단’ 대구FC,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워

손지영 엔젤 삼성디지털프라자 경산본점, 동호점 대표이사



1 코로나로 인하여 가전시장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장의 폭발성장으로 사업환경이 급변하였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에 경산시 중방동으로 매장을 확장 이전했으며, 오픈매출 신기록 달성과 변함없는 전국판매 1위(SDP기준)를 달성하였습니다.

2 지인소개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축구장을 방문하여 응원도 참여했었는데, 이후에 사업이 바빠져서 현장에는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대구FC의 활약상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후원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3 대구FC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우리들의 축구단’입니다. 대구FC의 활약상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큰 위안과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DF 김진혁 선수

4 모든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아울러 선수단을 대표하는 주장인 김진혁 선수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팀을 잘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축구경기 보며 시민구단의 매력에 빠져

이윤희 엔젤 존스 버거 들안로점 대표



1 코로나19로 지난 3년을 잘 견뎌낸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경영하던 사업과 더불어 지난 4월 수제 햄버거 집을 오픈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연료 삼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2 ‘어떤 마음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후원에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리고 경기장에서 매번 축구경기를 보면서 엔젤회원님들과 함께 기뻐하고 안타까워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3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단이 있다면, 축구·야구·농구 등 종목에 관계 없이 어느 팀에 애정을 갖고 응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관심도 가지게 되고, 함께 사는 사회, 베풀고 배려하는 사회도 만들 수 있겠지요. 스포츠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하게 된다고나 할까요. 한 마디로 ‘진정한 시민구단’의 존재 이유입니다. 대구FC가 바로 그런 존재지요.



DF 정태욱 선수

4 요즘 슬럼프에 빠진 정태욱 선수를 응원합니다. 예전의 든든한 팔공산성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화팅 하세요!!

시민과 구단의 유대감 중요

이진백 엔젤 지엔비오토모빌(주) 회장



- 1 모두가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뒤로 하고 드디어 코로나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식이라는 표현보다 단계적 회복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에 개인간 위생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모두가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2 대구지역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대구FC 선수들의 기량도 심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후원이야말로 우리 선수들의 좋은 실적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3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선수와 시민이 하나의 공통된 유대감을 느끼며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성숙한 스포츠 문화발전에 있어서도 시민구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F 장성원 선수

- 4 최근 재활을 끝마치고 복귀한 장성원 선수를 응원합니다. 대구FC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며, 좋은 활약을 통해 앞으로도 구단의 우승에 많은 활약상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인 소개로 엔젤가입, 우리팀이라 생각하고 후원

이진환 엔젤 삼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1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업무환경이 비대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또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처음에는 단순히 지인 소개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구FC의 활약상을 보면서 축구 이상의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구단이라는 것에 마음이 갑니다. 시민구단이라고 생각하니 '우리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후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3 처음에는 '시민구단'의 의미를 몰랐으나, 엔젤클럽에 가입하고부터 '시민구단'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시민구단'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진정한 시민구단은 우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우리들의 축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DF 홍정은 선수

- 4 모두가 가족 같은 선수입니다. 굳이 응원해야 한다면 팔공산성의 한 부분으로 대구의 든든한 수비에 한 축이 되고 있는 홍정은 선수입니다. 올해는 부상없이 마지막까지 좋은 활약 기대해 봅니다.

대구에 시민구단 있다는 자부심 가져

이형원 엔젤 (주)일성침장 대표



- 1 정부의 방역수칙 완화로 지난해보다는 한결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 기쁩니다. 물론 최근 들어 다시 확산 조짐이 있지만, 모두가 한번 경험해본 터라 자율적으로도 잘 대비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스스로 건강을 돌아보게 된 것도 뜻 깊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 2 경기장에 가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우리 도시에 시민구단 대구FC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과거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엔젤 출범 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후원하는 데도 힘이 납니다. 이런 마음이 선수들에게도 잘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시민구단은 이름 그대로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인 힘으로 만들어진 구단입니다. 제가 속한 보전대 웰니스문화산업최고위과정(DHC TOP과정)에서도 누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대구FC를 후원하고 있지요. 바로 이런 '시민정신'으로 성장하는 것이 시민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DF 조진우 선수

- 4 수비수이면서도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는 조진우 선수를 응원합니다. 대구와 제주의 중요한 경기에서도 결승골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지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합니다.

선수과 시민 마음 같아야 '진정한 시민구단'

정재호 엔젤 초록들코리아(주) 대표



- 1 코로나로 인하여 축구경기가 개최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대구FC 선수들의 활약을 보지 못해 더 아쉬웠답니다. 이제는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된 만큼, 경기장에서 좋은 활약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FC 힘내세요.
- 2 후원이라는 것은 작고, 큰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FC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구단으로서 시민에게 주는 기쁨도 좋은 에너지라고 봅니다.
- 3 우선 시민구단이 가지는 상징성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구단이라는 겁니다. 성적도 좋아야 하지만, 시민과 함께 하는 구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구단이 시민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다가오는 방법은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구FC 선수 모두 스타

- 4 축구에서는 스타가 중요합니다. 대구FC 축구단의 선수 모두가 스타입니다. 누구를 먼저 하기 보다, 모든 선수와 시민이 경기장에서 하나 나뉘는 것이 진정한 응원이 아닐까 합니다.

시민이라면 당연히 동참해야 할 엔젤클럽

조영래 엔젤 (주)건축사사무소 원형건축 대표이사



- 1 지난 2020년부터 발생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위축은 물론 엄청난 일상생활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서로 격려하며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달라진 일상과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도 축구를 사랑하는 일편단심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더욱 뜨겁게 묶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엔젤이 있어 든든하고, 엔젤이 있어 행복합니다.
- 2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구단을 후원하는 엔젤클럽에 동참하고 후원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게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함으로써 우리 대구가 조금씩 발전하고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계속 후원할 생각입니다.
- 3 엔젤클럽은 시민들로 구성된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든 후원조직입니다. 당연히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순수 시민구단인 우리 대구FC가 가장 모범적인 시민구단으로 유지하고 발전하는데는 엔젤과 시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FC 소중한 보배들

- 4 대구FC 팀원 모두가 최고이며,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시민들의 사랑과 희망을 안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새롭게 들어온 외국인 선수 페냐가 잘 적응하기를 희망해봅니다.

다시 돌아온, 대박에서 목청껏 응원

현정규 엔젤 (주)영진기공 대표이사



- 1 목청껏 응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전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관중석도 만원이 될 것이고, 대박이 다시 응원의 목소리와 몸놀림으로 광광 울려 퍼질 것이라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 2 대구FC가 시민구단이고 엔젤클럽이 시민구단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대구시민을 한데 묶는 상징적인 콘텐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3 시민을 화합하게하고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지역의 문화를 창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일 수 있지만 대박하면 이제는 전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구의 명소이고 공공 따는 응원문화로 발돋움하였습니다.



FW 이근호 선수

- 4 과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를 상위권에 올려놓은 이근호 선수. 대구에서 다시 볼 수 있어서 반갑고, 좋은 성적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도록 대구FC맨으로 남아주세요!

런던에서 보내는 이동명 엔시오의 편지

코로나 완화 되면서 토트넘과 레스터 시티 경기 관람

손흥민 원더골 직관, 눈 앞에서 인사 받고 황홀

영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한 지 어언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모두들 영국에 있다고 하면 프리미어리그를 즐겨 본다고 생각하겠지만, 저의 경우는 코로나와 바쁜 학업 생활로 인해 현지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직관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한국인이라고 하면 "I know Son"이라는 답변과 함께 그의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의 경기를 직접 본 적이 있다고 물어보지요. 제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그들은 놀라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와 관련된 해외 여행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국에 있던 친구가 런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손흥민 경기를 보러간다고 했지요. 저와 함께 말예요. 해당 경기가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매치업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토트넘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신축 구장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의 분위기가 궁금했고, 무엇보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직접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경기장은 런던 중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토트넘에 위치해 지하철과 버스를 여러 번 갈아 타야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서 시선을 끌었던 것은 경기장에 가까워질수록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거나 선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점이었습니다. 대중교통에 이어 도보로 경기장에 도착한 저는 첫 번째로 토트넘 상품 판매점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장 앞에는 손흥민과 케인의 사진을 필두로 몇몇 선수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안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니폼 등 구단 용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은 인기가 많아 홀 유니폼은 이미 품절이어서 저는 결국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스타디움에 입장했습니다. 안내 요원이 짐 검사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를 하고 모바일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관중의 숫자가 어마무시한 만큼 곳곳에 안내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궁금한 점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미로와 같은 복도를 지나 3층에 위치한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를 관람하기 전 혹은 경기 중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펍이 있었고, 유리문을 통해 경기장 관람석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관중들은 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을 실내에서 편하게 볼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다른 팀들의 경기가라운지에 비치된 TV스크린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경기를 관람하기 전라운지에서 간단하게 맥주와 과자를 먹은 후 관중석으로 입장했습니다. 관중석에 입장하는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관중들의 열기는 과열됐고, 훈련을 하는 선수들의 패스와 개인기 등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면서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시작됐는데, 전반 초반에는 선수들이 몸이 덜 풀려서인

지 경기 템포가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탐색전을 하는지 결정적인 찬스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전반 후반, 토트넘은 코너킥 찬스를 맞았습니다. 키커로는 손흥민이 나섰고, 절묘한 킥의 궤적을 보며 사람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는 순간 케인이 멋진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손-게 듀오의 환상적인 콤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요했던 경기장은 일순간 열광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반전은 토트넘의 리드로 끝났습니다.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한편으로는 손흥민도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라운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의 몸이 전반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공을 가지고 있는 동안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손흥민의 골을 기대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후반 14분 클루세프스키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골대 앞에서 몸을 돌려 원발 터닝슛으로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장은 더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골을 만회하기 위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에게 또 한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경기 중반 일명 '손흥민 존'에서 손흥민은 특유의 원발 인사이드 킥으로 원더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슈팅을 하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고 공은 그 무엇보다 예술적으로 골대 왼쪽 상단 모서리로 날아갔습니다. 이 골이 들어가는 순간 경기장은 마치 폭발하는 듯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로 경기장 전체에 진동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이 골 이후 토트넘은 승리를 확신하며 손흥민 등 주요 선수들을 교체하며 쉬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3 대 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유튜브 영상으로만 봐오던 손흥민 선수의 인사를 코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골 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이 득점왕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 수 있는 중요한 경기를 볼 수 있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중간중간에 울려 퍼지는 선수들의 응원가, 콘테 감독 응원가 등은 경기의 흥을 북돋워 주었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골을 넣고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는 손흥민 선수

한편으로는 내 고향 대구의 DGB대구은행파크가 생각났습니다. 영국으로 올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었던 저는 경기장에 관중 대신 엔젤깃발로 가득 채우는 엔젤깃발퍼포먼스에 동참했었지요. 영국 프리미어리그만큼은 아니지만 유튜브로 본 대박의 열기는 유럽 못지 않게 뜨거웠습니다. 지금의 열기, 그리고 엔젤과 서포터즈 시민들이 응원하는 분위기로 봐서, 곧 대구 역시 런던처럼 축구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날이면 저 역시 대구FC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서 엔젤, 엔시오, 그리고 축구팬과 함께 '손흥민'이란 한 선수가 아니라 시민구단 '대구FC'를 뜨겁게 응원할 것입니다. 어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런던에서 | 이동명 엔시오/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과정



힘들 때가 승부다!

그대들의 뒤에 우리가 있다. 힘내라 대구FC!

DAEGU FC REPORT

대구FC, 팀 투지 살아나

대구FC 막바지 대반격 기대

K리그, ACL, FA컵 일정 겹치면서 피로도 누적
ACL 16강전 비록 패했지만, 팀 투지 살아나



ACL 16강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포효하는 제카 (사진 출처: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규라운드 6경기를 남겨두고 대구FC의 막바지 대반격이 기대된다. 대구FC는 지난 8월18일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이하'ACL') 2022 16강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패했지만,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고 대구 특유의 투지가 살아나는 등 9월 대반격이 예상된다.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대구FC는 그동안 K리그는 물론 ACL과 FA컵까지 겹치면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 왔다. 특히, 올해는 카타르월드컵이 열리는 만큼 리그 일정도 빠듯해 잦은 경기로 인해 세징야 등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면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8월 18일 현재 5승12무10패로 하위권에 머물며 최근 몇 년간 보여왔던 대구의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가마감독까지 사퇴하면서 팀이 흔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최원권 감독대행이 데뷔전을 치른 ACL 16강전에서 강팀 전북현대를 맞아 비록 패했으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 주었고, 대구의 끈끈함도 살아나면서 남은 시즌을 기대케 했다. 여기에서 190cm 장신의 타워형 공격수 제카가 ACL 16강 경기에서 골을 넣는 등 꾸준히 활약하고 있고 세징야, 고재현 선수의 공격진과 대구가 자랑하는 수비진인 '팔공산성'이 다시 살아날 경우 전력에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권 감독 대행은 ACL 경기를 마친 후 "스쿼드도 엄청 얇은 데다 부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20분을 뛰어준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기지 못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막바지 대반전을 다짐했다. 4

대구FC, 미드필더 페냐 영입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페냐 영입

등번호 70번, 민첩한 왼발잡이로 대구 공격에 활력



자료제공: 대구FC

대구FC는 지난 7월 브라질 아틀레티코 미네이루로부터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페냐를 영입했다. 브라질 출신의 페냐는 2016년 브라질 아틀레티코 미네이루에서 프로무대에 입문했다. 이후 CRB, 코임브라, 삼파이오 등 브라질 무대에서 임대 생활을 거친 페냐는 지난 시즌 호주 뉴캐슬 제츠에서 임대로 활약했다.

페냐는 전 소속팀에서 전담 키커 역할을 수행할 만큼 좋은 왼발 킥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시즌 호주 A리그에서 23경기 4골 11도움을 기록하며 선전한 페냐는 민첩성과 활동량이 뛰어나며, 드리블을 통해 상대 수비를 유인하여 공간을 창출하는 부분에 강점이 있다. 대구는 페냐의 영입으로 전술적으로 더욱 다양한 공격 조합을 기대하고 있다.

등번호 70번을 부여받은 페냐는 "대구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됐다"며 "멋진 경기력으로 대구 팬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4

페냐 MF
생년월일 1998. 10. 17.
신체 170cm / 69kg
포지션 MF
등번호 70번
K리그 통산기록 4경기 1득점 1도움



1 GK 최영은

K리그 통산기록 57경기 73실점 0도움
생년월일 1995. 9. 26. | 신체 189cm, 78kg | 전 소속 성균관대



2 DF 황재원

K리그 통산기록 22경기 1득점 2도움
생년월일 2002. 8. 16. | 신체 180cm, 73kg | 전 소속 홍익대



5 DF 장성원

K리그 통산기록 59경기 0득점 4도움
생년월일 1997. 6. 17. | 신체 175cm, 70kg | 전 소속 한남대



6 DF 홍정운

K리그 통산기록 119경기 7득점 2도움
생년월일 1994. 11. 29. | 신체 187cm, 76kg | 전 소속 명지대



3 DF 김우석

K리그 통산기록 105경기 2득점 2도움
생년월일 1996. 8. 4. | 신체 187cm, 74kg | 전 소속 신갈고



4 DF 정태욱

K리그 통산기록 115경기 4득점 3도움
생년월일 1997. 5. 16. | 신체 194cm, 92kg | 전 소속 제주UTD



7 DF 김진혁

K리그 통산기록 161경기 19득점 4도움
생년월일 1993. 6. 3. | 신체 187cm, 78kg | 전 소속 송실대



11 FW 세징야

K리그 통산기록 199경기 74득점 52도움
생년월일 1989. 11. 29. | 신체 177cm, 74kg | 전 소속 Bragantino

13 MF 오후성

K리그 통산기록 40경기 1득점 2도움
 생년월일 1999. 8. 25. | 신체 173cm, 64kg | 전 소속 현풍고

14 MF 안용우

K리그 통산기록 154경기 13득점 14도움
 생년월일 1991. 8. 10. | 신체 176cm, 69kg | 전 소속 시간도스

17 MF 고재현

K리그 통산기록 82경기 13득점 4도움
 생년월일 1999. 3. 5. | 신체 180cm, 67kg | 전 소속 대륜고

18 DF 케이타

K리그 통산기록 18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1997. 12. 20. | 신체 172cm, 70kg

15 DF 이원우

K리그 통산기록 1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3. 3. 16. | 신체 191cm, 80kg | 전 소속 장훈고

16 FW 전용준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3. 7. 16. | 신체 180cm, 69kg | 전 소속 진위고

19 FW 제카

K리그 통산기록 17경기 5득점 3도움
 생년월일 1997. 3. 6. | 신체 190cm, 83kg | 전 소속 Mirassol Futebol Clube

20 DF 박병현

K리그 통산기록 78경기 3득점 1도움
 생년월일 1993. 3. 28. | 신체 184cm, 84kg | 전 소속 대륜고

21 GK 오승훈

K리그 통산기록 178경기 229실점 0도움
 생년월일 1988. 6. 30. | 신체 192cm, 75kg | 전 소속 호남대

22 FW 이근호

K리그 통산기록 345경기 76득점 52도움
 생년월일 1985. 4. 11. | 신체 176cm, 74kg | 전 소속 울산현대

26 DF 이진용

K리그 통산기록 51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1. 5. 1. | 신체 180cm, 73kg | 전 소속 현풍고

27 FW 김동현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3. 4. 17. | 신체 173cm, 68kg | 전 소속 학성고

23 FW 김태양

K리그 통산기록 2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0. 2. 7. | 신체 184cm, 77kg | 전 소속 연세대

25 DF 이태희

K리그 통산기록 179경기 6득점 15도움
 생년월일 1992. 6. 16. | 신체 183cm, 74kg | 전 소속 송실대

28 MF 최민기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2. 11. 8. | 신체 180cm, 73kg | 전 소속 장훈고

29 DF 박재현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3. 9. 16. | 신체 177cm, 69kg | 전 소속 계명고

30 FW 박용희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2. 3. 29. | 신체 180cm, 74kg | 전 소속 홍익대

31 GK 이윤오

K리그 통산기록 1경기 0실점 0도움
 생년월일 1999. 3. 23. | 신체 190cm, 84kg | 전 소속 베갈타 센다이

34 DF 손승우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2. 3. 18. | 신체 176cm, 71kg | 전 소속 천안제일고

36 MF 김희승

K리그 통산기록 11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3. 1. 19. | 신체 184cm, 81kg | 전 소속 천안제일고

32 FW 정치인

K리그 통산기록 51경기 2득점 1도움
 생년월일 1997. 8. 21. | 신체 182cm, 71kg | 전 소속 대구공고

33 DF 홍철

K리그 통산기록 323경기 14득점 42도움
 생년월일 1990. 9. 17 | 신체 176cm, 70kg | 전 소속 단국대

37 FW 이종훈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2. 3. 21. | 신체 175cm, 70kg | 전 소속 현풍고

38 MF 배수민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2. 3. 21. | 신체 183cm, 73kg | 전 소속 청주대

39 DF 박재경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0. 4. 28. | 신체 190cm, 80kg | 전 소속 학성고

40 FW 신중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1. 11. 13. | 신체 175cm, 71kg | 전 소속 청구고

51 GK 한지울

K리그 통산기록 경기 0실점 0도움
 생년월일 2003. 8. 21. | 신체 193cm, 90kg | 전 소속 현풍고

66 DF 조진우

K리그 통산기록 49경기 3득점 0도움
 생년월일 1999. 11. 17. | 신체 189cm, 81kg | 전 소속 마츠모토 야마가

41 GK 이학운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실점 0도움
 생년월일 2000. 3. 9. | 신체 189cm, 75kg
 전 소속 포항제철고

42 FW 안창민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1. 6. 28. | 신체 189cm, 81kg
 전 소속 부평고

44 DF 김리관

K리그 통산기록 0경기 0득점 0도움
 생년월일 2003. 4. 2. | 신체 184cm, 80kg
 전 소속 현풍고

70 MF 페냐

K리그 통산기록 4경기 1득점 1도움
 생년월일 1998. 10. 17. | 신체 170cm, 69kg
 전 소속 브라질 아틀레티코 미네이루

74 MF 이용래

K리그 통산기록 257경기 19득점 18도움
 생년월일 1986. 4. 17. | 신체 175cm, 71kg | 전 소속 치앙라이



감독대행 최원권

생년월일 1981. 11. 8.
전소속 | 출신교 대구FC | 동북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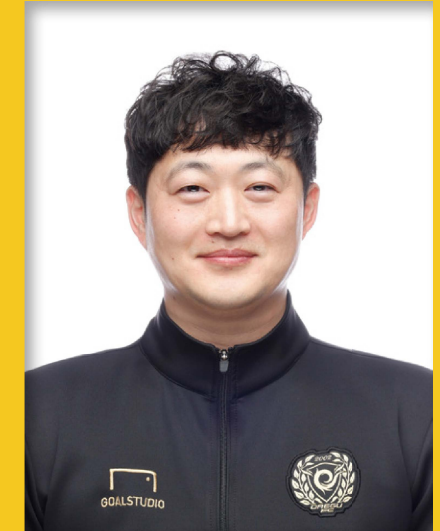
GK코치 이용발

생년월일 1973. 3. 15.
전소속 | 출신교 인천UTD | 동아대



물리치료사 노현욱

생년월일 1970. 3. 13.
전소속 | 출신교 용인대 | 영신고



트레이너 박해승

생년월일 1984. 3. 11.
전소속 | 출신교 대구FC U-18 | 대구대



피트니스코치&통역 이종현

생년월일 1987. 1. 8.
전소속 | 출신교 김해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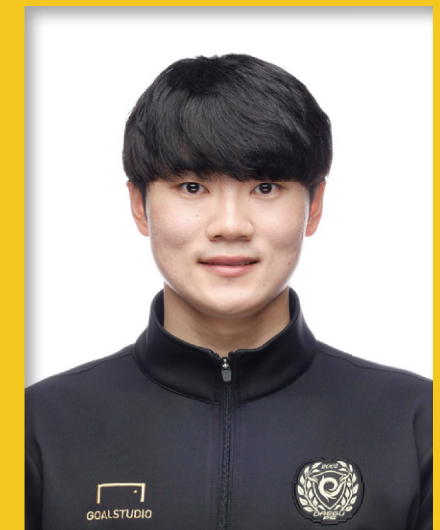
2군 코치 정선호

생년월일 1989. 3. 25.
전소속 | 출신교 동의대



트레이너 이대균

생년월일 1990. 8. 8.
전소속 | 출신교 대한한의대



키트매니저 김동규

생년월일 1996. 9. 3.
전소속 | 출신교 아마나시가쿠인대학교

Thanks ANGEL CLUB

ANGEL DIARY



달려라! 엔젤카

눈 비에도, 피약벌에도 엔젤카는 변함없이 달려갑니다. 시민구단 대구FC를 사랑하는 엔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엔젤들이 시민구단을 후원하면서 시티즌 오블리주(시민책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엔젤의 전령사' 엔젤카는 언제나 엔젤의 발이 되어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명문자립시민구단을 위한 엔젤여러분의 시민정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1**

수록된 엔젤은 2022년 8월 12일까지 명단입니다. 이후의 엔젤은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Photo by 대구FC

엔젤카가 간다



강병규 엔젤
세영회계법인



강성길 엔젤
(주)디자인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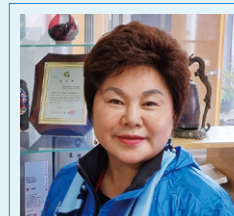
강신일 엔젤
대영리츠건설(주)



강윤석 엔젤
(주)조안



강일규 엔젤
대서산업(주)



강정숙 엔젤
(주)채선



강정영 엔젤
오늘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종구 엔젤
현대코퍼레이션(주)



고민환 엔젤
(주)상산건설



공윤욱 엔젤
울성회계법인



곽진순 엔젤



권경훈 엔젤
강북연합정형외과



권시원 엔젤
(주)중산도시개발



권영갑 엔젤
(주)EMS



권오복 엔젤
(주)진영아이앤씨



권오상 엔젤
(주)대광솔라



권오종 엔젤
(주)대유기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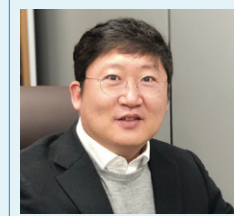
권일경 엔젤
(주)위드



권주택 엔젤
(주)갑산전기



김영일 엔젤
(주)고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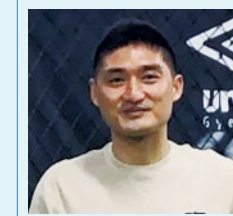
김갑태 엔젤
(주)아름



김강수엔젤
푸르덴셜생명



김경식 엔젤
대곡자동차매상사



김규현 엔젤
VAMOS 축구센터



김동규 엔젤
(주)범서



김동휘 엔젤
굿네이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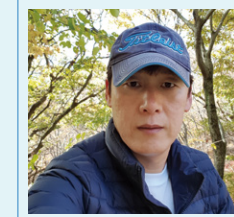
김명용 엔젤
(주)명성



김범현 엔젤
(주)한라이앤씨



김보성 엔젤
(주)가온메디칼



김상길 엔젤
(주)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대구지사









DAEGU STRONG

대구FC엔젤클럽이 2022년 대구FC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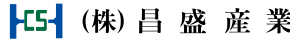
대영에코건설(주) 이호경 회장



세영회계법인
강병규
운영본부 상임부회장



아트건설
박기원
엔젤본부 상임부회장



(주)창성산업
정소영
대외협력본부 상임부회장



이지컴퍼니(주)
조승우
영스카이본부 상임부회장



오늘경제
강정영 홍보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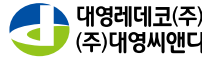
(주)다원아이디
정영준 상임이사



(주)에드앤피알스미스
이태훈 상임이사



히아브 하나
김상수 상임이사



(주)대영레데코
송원배 상임이사



선미(주)
이철모 운영이사



대구풋살연맹
최태원 운영이사

박혜영 운영이사



디자인해밀
조병래 운영이사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성수 운영이사



이지영 운영이사

와이디자인랩
안유학 운영이사

(주)무영
박기자 운영이사



(주)뷰티코하트
백무연 운영이사



부경TS
김상덕 운영이사



세광종합상사
김중선 운영이사



존스버거 들안로점
이윤희 운영이사

엔젤클럽 자문위원

김성열 (주)아나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김충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도재영 (주)웅진기업
박명수 (주)명진금속	정영만 제이아그로(주)	반용석 반치과	송준기 지산치과	엄달현 (주)대창엠코
이병훈 대구 스텐레스	장익현 장익현 변호사 사무실	주대중 함창교육재단	천자우 (주)에슬린	하윤수 한국공조
허홍만 명성골프	장병배 상인성당			

엔젤클럽 상임부회장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박기원 아트건설	정소영 (주)창성산업	조승우 이지컴퍼니(주)
---------------	-------------	----------------	-----------------

엔젤클럽 부회장

김완준 (주)JID	김용범 (주)에스알	김재홍 대호약품	김주성 광개토병원	박해대 미래테크(주)
배성혁 DIMF 집행위원장	서정원 (주)대선	신용범 한미산업	심인철 동명테크원(주)	윤태경 바로본병원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이승현 (주)동서개발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Diamond Angel

대구FC엔젤클럽, 대구FC와 영원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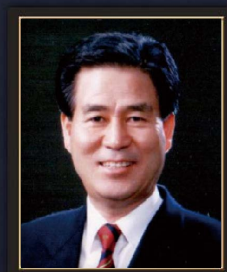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진영환
삼익THK(주)



조종수
(주)서한



정태일
한국OSG(주)



진덕수
대흥코스텍(주)



노기원
(주)태왕E&C



정태호
대영코어텍(주)



김동구
금복주



이충곤
SL그룹



백서재
(주)대영전자



권원강
교촌그룹



김상태
평화정공(주)



성점하
(주)뉴프라임



문경화
하안얼굴예쁜몸매(주)로로피아니



이기환
거한건설(주)



현수환
(주)동원약품



박정흠
(주)수성의숲



황인혁
인성데이터(주)



최영수
크레텍



이창원
거림테크(주)



이명수
(주)진양오일씸 대표

※ 다이아몬드 엔젤 가입순입니다.

대구FC Angel Club

엔젤클럽 2022 신입회원



박진순 엔젤



김귀현 엔젤
VAMOS 축구센터



김수원 엔젤
경기자수



김영만 엔젤
만석산업개발



김재영 엔젤
(주)테힐라



김종욱 엔젤
(주)계림씨엔디



김종운 엔젤
신화건축



김호철 엔젤
(주)더바른컴퍼니



남경문 엔젤
(주)에스엠디앤씨



노성식 엔젤
(주)도시와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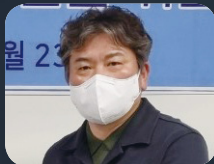
경산상공회의소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박상환 엔젤
경덕철강공업(주)



박성길 엔젤
(주)세종물류



박영일 엔젤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박운규 엔젤
보승종합물류(주)



박은성 엔젤



박재웅 엔젤
성서 동산병원



박종률 엔젤
대성에너지(주)



박훈순 엔젤
경동상사



박희경(자) 김기나(우)
엔젤



배진범 엔젤
미래씨모텍



서상훈 엔젤
카지수학학원



신인철 엔젤
신안통상



안계준 엔젤
신한금융그룹 신한라이프



안철우 엔젤
우림간병센터



양승원 엔젤
경북동부신문



오대국 엔젤
(주)에스디지엔텍



이병재 엔젤
바칸파트너스



이종우 엔젤



이지영 엔젤(왼쪽)



이형진 엔젤
하이미트피앤비



임종규 엔젤
영남전기관리(주)



정대식 엔젤
오케이정육



정영석 엔젤
카즈



조군삼 엔젤
대신택배



진기명 엔젤
100세동안



최환 엔젤
더블유에셋(주)



허성환 엔젤
칠곡경북약국



현성철 엔젤
(주)이노스벤



황대연 엔젤
삼오산업가스

성명	회사명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강병균	에나멜치과 기공소
강성길	(주)디자인비전
강신일	대영리츠건설(주)
강윤석	(주)조안
강은주	(주)더블루팜
강일규	대서산업(주)
강일만	(주)세신엔지니어링
강정숙	테라앤수(주)
강정영	오늘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종구	현대코퍼레이션(주)
강준기	(주)포머스
강철원	(주)에일커뮤니케이션즈
강태중	(주)한도엔지니어링
강환수	(주)덕산코트랜
경산상공회의소	
고경집	
고민환	(주)상산건설
고삼규	보광병원
공영우	동성건재판매(주)
공윤욱	울성회계법인
공제영	(주)신성건설
곽덕섭	(주)태명개발
곽동호	곽치과병원
곽재훈	운경재단
곽준성	삼성전자
곽진섭	(주)금오조경개발
곽진순	
곽진훈	(주)삼보스틸
구건우	PR네트웍스
권경훈	강북연합정형외과
권석원	동진건설(주)
권시원	(주)중산도시개발
권영갑	(주)EMS
권영진	전 대구광역시장
권영희	(주)한국알파시스템
권오길	한성건설주식회사
권오복	(주)진명아이앤씨
권오상	권오상 법률사무소

성명	회사명
권오상	(주)대광솔라
권오순	(주)디에스시스템
권오중	(주)대유기전공사
권오춘	(주)아름다운건설
권일경	(주)위드
권장대	(주)세화정공
권재원	(주)아우노
권주택	(주)갑산전기
권혁기	(주)산동개발
권혁준	요셉성형외과의원
금영일	(주)고위드
김갑태	(주)아름
김강수	푸르덴셜생명
김경록	신도대구사무기
김경식	대곡자동차매상사
김경태	리더스금융판매(주)
김광수	(주)한맥창호
김귀현	VAMOS 축구센터
김규일	(주)세원이엔지
김규정	삼성생명
김기나	브이성형외과
김기현	(주)기남금속
김남호	더원창호
김달호	동광건설(주)
김대엽	(주)대영일루션
김대훈	금탑한의원
김도현	(주)한국신재생에너지
김동국	DK글로벌코리아
김동규	피자팜비어 대구FC침산점
김동휘	굿네이버스
김말분	
김명수	(주)대남건설
김명용	(주)명성
김명일	(주)제이엔엠 파사드
김묵진	
김민태	동화주택
김범일	전 대구광역시장
김범현	(주)한라이앤씨
김병오	필즈학원

성명	회사명
김보성	(주)가온메디칼
김상걸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구지사
김상덕	부경TS
김상섭	티브로드 대구방송
김상수	청운신헌
김상수	히아브하나(주)
김상호	(주)내일건설
김 석	(주)삼덕아스콘
김석호	한도식품(주)
김성곤	바르미 호텔인터불고대구
김성관	(주)이슬나라
김성덕	소프트코리아
김성렬	(주)대성건업
김성열	(주)아나, 아나식품
김성은	(주)다무산업개발
김성준	(주)지엔비모터스
김성호	(주)오상인터네셔널
김성호	성산종합건설(주)
김세중	비즈니스컨설턴트
김수원	경기자수
김순덕	(주)신영도시개발
김순조	삼성생명COT
김승우	KS상사
김승필	삼성프린팅솔루션
김애경	
김양우	(주)티앤지코리아
김연수	대구광역시축구협회
김영규	김영사종합상사
김영만	만석산업개발
김영숙	대구보건대학교
김영식	영진전공
김영식	굿락코리아
김영업	지디종합건설(주)
김영준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김오동	명신종합건설(주)
김완준	(주)제이아이디
김용규	(주)창녕참우축산
김용범	(주)에스알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노란 상자는 5회 이상 후원 엔젤입니다



성명	회사명
김용봉	(주)와이쓰리
김용식	(주)청맥산업
김용우	테스트중입니다
김용운	(주)태하시스템창호
김용찬	(주)보광건설
김용하	대영에코건설(주)
김우일	(주)김샘교육
김원수	세무사 김원수 사무소
김원은	
김의수	(주)화산종합건축개발
김재범	울성회계법인
김재영	(주)테힐라
김재우	(주)삼일기업
김재우	대양정밀
김재울	(주)영림NT
김재필	(주)주안디앤씨
김재혁	잉글리쉬 유나이티드
김재홍	대호약품
김정달	현대동구서비스
김정미	멀티애드
김정수	경북대학교병원
김정수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김정철	경북대오발ایش연구센터
김정희	김정희 건강피부관리실
김종구	로즈마리 여성산부인과
김종선	세광종합상사
김종욱	(주)계림씨앤디
김종운	신화건축
김종원	금야의수죽연구소
김종철	신흥버스(주)
김종태	(주)제이제이건설
김종호	(주)우인바스텍
김주성	광개토병원
김주현	(주)신안피피
김주환	경안플랜트, 경안솔라
김준목	신정산업
김준현	지에이코리아
김중곤	ADT캡스
김지관	(주)그린하니컴

성명	회사명
김지만	대구광역시축구협회
김지미	(주)시마
김진기	영문산업건설
김진성	푸르덴셜생명
김진엽	송산엘앤씨
김진홍	대구우편집중국
김충환	대구공고총동창회
김치호	(주)도영전설
김태건	공간이름
김태균	(주)에디커뮤니케이션즈
김태길	피앤에이
김태수	대구자동차정비조합
김태훈	(주)태경건설
김한수	마이스산업연구원(주)
김현만	서원종합건설(주)
김현철	에인에이(주)
김형동	대구시 대외협력특보
김형식	(주)동인전력
김형찬	울트라메탈
김호용	(주)건강누리
김호철	(주)더바른컴퍼니
김홍식	TBC
김홍만	엔젤클럽홍보작가
나경성	엘리바덴 온천
나재승	(주)더모나코그룹
남경문	(주)에스엠디앤씨
남경원	(주)경원덴탈
남규동	디에이치지(주)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남재현	(주)러버원
노규영	(주)명일폼
노병수	영남일보
노성식	(주)도시와풍경
노승희	SGI구미지점 미주대리점
노영균	열린요양병원
노재관	대구청원경찰노동조합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노현영	코리아와이드경북
노혜영	

성명	회사명
달서구축구협회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도원호	해성정공
도윤수	파사디골프
도재영	(주)웅진기업
류광열	(주)원재산업
류영애	류영애세무회계사무소
류창현	(주)아프리카TV
류효충	신라산부인과
류 훈	(주)중앙세라믹스
문길남	(주)신세계건설
문성균	(주)명성시멘트
문종혁	(주)동화건설
문준기	대경맥주(주)
문현훈	(주)디아와이덴탈스튜디오
문홍국	뉴부림고속관광(주)
문희갑	전 대구광역시장
민춘홍	(주)한국파이프
박경식	이원의료재단
박경우	(주)현창건설
박경환	변호사 박경환 법률사무소
박관식	비에스치과교정과치과의원
박금화	서라벌대학교
박기원	아트건업
박기자	(주)무영
박길상	남북의료기상사
박대진	(주)리체바이오
박동규	한국디자인 모형(주)
박동선	현대개발
박동술	성동제통의원
박동천	박국투어
박두천	경북대병원
박두한	오르다승무원학원

성명	회사명
박래석	(자)삼우전자통신
박명규	(주)우진설비
박명수	(주)명진금속
박민천	(주)다운PLUS
박배창	(주)청도샘물
박병구	전 대구미술협회장
박병수	(주)동일스테인레스
박병욱	(주)달인식품
박병준	HC보광
박상열	박상열세무회계사무소
박상욱	(주)코람
박상환	경덕철강공업(주)
박석현	티비씨
박성길	(주)세종물류
박성묵	대광문화인쇄
박성수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성욱	(주)삼송BNC
박성진	(주)곰그린
박성호	금강운수(주)
박성호	
박소민	디자인그린
박순하	(주)코너스톤 자산운용
박승환	(주)처갓집양념치킨
박영일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박우호	세영회계법인
박윤규	보승종합물류(주)
박윤경	케이케이(주)
박유하	(주)우경정보기술
박은성	
박익진	엔젤클럽홍보작가
박인호	(주)삼영이앤티
박재웅	성서 동산병원
박재현	(주)신우씨엠디
박정민	(주)간여행사
박정수	중원전력주식회사
박종률	대성에너지(주)
박종철	(주)우일건설
박종화	(주)세보종합건설
박주현	대구과학대학교

성명	회사명
박준규	(주)이노베이션
박준섭	변호사 박준섭법률사무소
박진숙	동일가구
박진우	(주)효성종합건설
박찬력	(주)KB팩토리
박찬원	문경시축구협회
박찬직	미성회계법인
박창훈	선경산업
박철웅	대구광역시축구협회
박철형	한빛에너지(주)
박춘선	선미(주)
박춘영	경산 인터볼고CC
박태범	(주)HB신소재
박태영	(주)케이아이티
박태정	(주)주원조경
박특환	박특환세무회계사무소
박한상	KBI메탈(주)
박한석	팔공 컨트리클럽
박해대	미래테크(주)
박해동	강북요양병원
박혜영	
박홍순	경동상사
박홍철	(주)신흥메탈
박홍식	(주)NS디자인
박희경	
박희진	은성복어
반용석	반치과
반정욱	미르건축(주)
방원주	(주)포항융합티앤아이
배경미	
배문구	승창침장
배상원	상원종합식품, 오대양식품
배성혁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배성훈	(주)성훈건축
배성희	고려피아노악기사
배용상	고광산업(주)
배인규	(주)한남라이팅
배인호	성호건설(주)
배장수	진명전력(주)

성명	회사명
배종찬	기성광고
배주락	(주)해성오피스탑
배진범	미래섬모텍
배태관	비앤에이
백경애	덕영치과기공소
백덕열	지오종합건설(주)
백무연	(주)뷰티코하트, 비아이티살롱
백순정	내추럴플러스
백승한	홍림금창
백운규	(주)우림종합엔지니어링
백을수	(주)국제경호센터
백해자	동인간호학원
변창훈	대구한의학대학교
변화곤	삼화건설(주)
서기수	즐거운세상 바르미 호텔인터볼고대구
서기승	동대구농협경제
서대구JC특우회	
서동국	(주)서진토목엔지니어링
서상인	(주)NCT
서상훈	카지수학학원
서순옥	
서정우	신성기업
서정욱	(주)MSC
서정원	(주)대선
서정원	효성그라비아
서종환	(주)제일종합배관
서준덕	중앙요양병원
서찬교	(주)대원전기
서철현	대구대학교
서태현	(주)산동개발
서태호	한성특수금속열처리
서형식	투썸플레이스
석한수	(주)유에이건축사사무소
성달표	(주)현대통상
성석훈	(주)명덕건설
성수환	신영남산업(주)
성순화	피플라이프(주)
손대권	대구은행 반야월지점(센터)
손상명	(주)신아개발



성명	회사명
손상주	
손성태	(주)성진포머
손수완	(주)수경
손지영	(주)두손
손현구	스파이 룩 카케어
송국영	(주)태왕
송원배	(주)대영레데코
송정아	태양인 이제마 한의원
송준기	자산치과
송준호	한국PIM(주)
송진오	(주)아이에스메이드
송채은	
송춘희	(주)대경CM
신경우	부창솔라(주)
신규창	신규창내과의원
신기영	ARSTOMA
신동화	(주)차오른
신승호	(주)선서오메가
신용범	(주)한미산업
신인철	신안통상
신정현	TGF골프
신희영	(주)아주텍
심인철	동명테크윈(주)
안계준	신한금융그룹 신한라이프
안상영	(주)광진종합건설
안승민	(주)상봉종합건설
안유학	와이디자인랩
안종수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
안철우	우림간병센터
안홍윤	YH바이오사이언스
양승원	경북동부신문
양승혁	인문사
양종호	현대자동차
엄관식	엄관식수학교습소
엄달현	(주)대창엠코
엄재국	(주)포맨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여상훈	법무법인(유한)클라스
여인찬	(주)수안

성명	회사명
영남대학교 의료원	
예영숙	삼성생명
예춘호	요셉성형외과
오대국	(주)에스디지엔텍
오승호	에스유산업건설(주)
오인식	(주)신정기공
오재완	(주)한국키네틱코엔지니어링
오진섭	세무사 오진섭사무소
우경호	한국팜비오
우영제	(주)한영
우주택	(주)명산
유병완	엔젤클럽홍보작가
유상석	금복홀딩스
유효정	
윤귀자	삼성생명
윤남수	(주)아석전기
윤덕근	침산올바른통증의학과의원
윤민환	씨엠케이푸드
윤종현	(주)세진이앤씨
윤창섭	(주)골든비
윤태경	바로본병원
윤희돈	미래에셋대우(주)
윤희영	디자인디오
은영기	(주)한솔개발
의사회축구단	
이강하	(주)아스코
이경곤	유성기초
이경숙	(주)미식주
이경호	(주)한길산업
이경호	동대구신세계약국
이광해	아사다라 한우셀프센터
이기식	(주)현대스텐
이대형	세계실업(주)
이덕록	(주)서보
이도윤	(주)세광하이테크
이돈관	(주)우수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이동관	매일신문
이동명	자비스

성명	회사명
이동원	변호사이동원법률사무소
이동진	(주)선진라이프
이동환	(주)폴토래
이명현	(주)동광명품도어
이문열	(주)대신공영
이병락	경북대병원 시설과
이병우	HOTEL여기어때 대구역점
이병재	바칸파트너스
이병훈	(주)대구스텐레스
이복희	(주)광덕전력
이상길	
이상득	태진테크
이상섭	조아전자(주)
이상열	(주)씨유크퍼니
이상완	금오상조익전
이석우	(주)삼진씨앤씨
이선찬	진성테크
이성구	마리아난임클리닉
이성동	(주)금보종합건설
이성배	(주)예가
이성엽	SL
이성욱	(주)부국철강
이승용	(주)동원약품
이승현	(주)동서개발
이영순	
이영우	(주)대광엔지니어링
이완철	(주)경상관광여행사
이용재	석문전기(주)
이우삼	(주)마스윈
이원영	평산개발건설
이원재	(주)핑거스냅
이윤하	그린사이언스
이윤희	한국알카리수(주) 수성구 대리점
이은준	SJ홀딩스
이은준	광개토병원
이은호	대영건축사사무소
이응상	(주)한승계기
이응찬	(주)건화
이재식	(주)아이델



성명	회사명
이재철	DGB대구은행
이재표	(주)제이에프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이재호	(주)한미인더스
이정미	아사무역
이정훈	(주)부성세라믹스
이종우	신흥산기
이종우	(주)풍문
이종원	(주)코그
이종현	(주)퓨리치
이주안	
이준철	태영전기
이중락	대구영화협회
이중호	(주)대영알앤티
이지영	
이지환	VIP응급환자이송센터
이진백	지엔비오토모빌(주)
이진수	(주)환경에이앤씨
이진환	삼원회계법인
이창환	(주)토담건축사사무소
이치우	대구음악협회
이철모	네네치킨 대구경북서부지사
이태현	법무법인마음
이태훈	(주)애드애플알스미스
이필후	대구그린에너지센터(주)
이한일	드림병원
이해봉	(주)봄커뮤니케이션즈
이 헌	(주)두강, 코디박
이한수	MG새마을금고 대원
이현규	미성회계법인
이현득	변호사이현득법률사무소
이형선	지성건설(주)
이형원	일성침장
이형진	하이미트피앤비
이호경	월드산업(주)
이호경	대영에코건설(주)
이화선	화선(주)
이희준	SGI서울보증보험 대동대리점
이희재	이희재건축사사무소

성명	회사명
인재현	뱌하노이 삼덕점
임광호	광명부부치과의원
임상택	위드고
임익기	(주)브라이트
임재현	(주)현대목재산업
임종규	영남전기관리(주)
임흥규	대평산업개발
장극윤	영진수예침장
장길화	(주)세안정기
장동렬	경산건업(주)
장병배	상인성당
장선윤	아쿠스코리아
장성태	대한개발
장용호	(주)나라산업
장우영	대구보건대학교
장원용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장익현	장익현법률사무소
장재화	(주)창녕참우축산
장정걸	(주)카리스조명
장정숙	자원환경
장정호	법률사무소 장
장철광	(주)유일
장홍석	대원기계공업(주)
전병규	일신프라스틱(주)
전성근	SK반야월대리점
전성렬	동양OA
전성봉	오케이포인트마트
전용수	(주)신동아전세관광
전용철	(주)근우정공
전재욱	(주)피플데이터
전중달	제이디건설(주)
전진길	(주)다원이앤씨
전해영	(주)하인종합건축사사무소
정경용	민초심
정대식	OK정육
정민교	대영채비(주)
정병창	세종건설
정병환	(주)삼보이데아
정봉길	가조종합개발주식회사

성명	회사명
정성인	GJ에셋
정소영	(주)창성산업
정연일	한패밀리병원
정연환	삼진이앤피
정영만	농업회사법인제이아그로(주)
정영목	(주)대한피앤씨건설
정영석	카즈 정비공장
정영준	(주)다원아یدی
정영철	제이스마인드의원
정용화	(주)대서케미칼
정일균	(주)다운시스템
정재석	(주)탑메디케어
정재현	세영회계법인
정재호	초록돌코리아(주)
정정국	(주)지엠이앤씨
정창룡	매일신문
정태경	(주)대성건업
정태균	닥터스영상의학과의원
정하용	동진특수인쇄
정현수	(주)보극이앤씨
정형우	(주)아이디어하이
정혜성	한국전통채색 화가
정호균	메디피아
정호용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정호윤	건축사사무소청연
조군삼	대신화물
조두석	(주)애드메이저
조득환	(주)금강알텍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조민규	
조민성	동영역직(주)
조병래	디자인해밀
조성섭	(주)도원이앤씨
조성수	(주)에이엘테크
조승우	이지컴퍼니(주)
조영래	(주)원형디앤씨
조용호	(주)어펙시스템
조장형	(주)나래피움
조정연	(주)대창디앤씨



성명	회사명
조준근	대구학원안전공제회
조준호	태일인슈(주)
조태근	리스펙트 스포츠 매니지먼트
조해녕	전 대구광역시장
조혁준	스카이스무원학원
조현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주)
조환열	재현엘앤씨
주기정	필 메디칼
주대중	함창교육재단
주진현	하늘나리
진기명	100세동안
진혜윤	(주)보강디엠에스
차상대	브리즈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주)
차성범	(주)삼인프라임
차순봉	선우종합건설(주)
차영규	(주)민영산업
차인석	(주)대성엔팩스
차훈일	(주)샘초롱농업회사법인
천순화	퀸무역
천용구	(주)기우
천자우	(주)예술린
천종열	(주)윤성건설
천해성	(주)하림조경
최경목	(주)수성정비서비스
최경수	(주)삼익테크
최고현	MBC
최규락	동양이엘
최길영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최대식	(주)동경주산업개발
최동욱	(주)한라공영
최만수	인터볼고CC
최명수	오성주류판매(주)
최명환	정건사종합건축사사무소(주)
최미경	법무사 최미경 사무소
최미연	대구은행
최서우	(주)뉴니케
최선주	(주)연호개발
최성주	(주)동진금속
최영철	(주)삼코

성명	회사명
최오원	(주)이렌트카
최우각	(주)대성하이텍
최원식	건축사사무소 리더
최윤연	
최은미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회
최은석	참조은병원
최익진	(주)풍국면
최인규	(주)코리아 라이프라인
최인철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최인호	(주)명성티엠에스
최일권	현대건설기계대구경북판매
최재호	(주)골든크라운
최재환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최종춘	아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종태	(주)솔트커뮤니케이션즈
최종택	세무사최종택사무소
최종해	동양종합건설(주)
최주열	팔달요양병원
최주희	다지행 법률사무소
최진오	한국디자인모형
최창배	신항도시개발(주)
최태원	대구시풋살연맹
최한교	(주)디스이즈모든
최 환	더블유에셋(주)
최효욱	(주)월성주택건설
추재엽	대영에코건설(주)
코바체프	
표병관	(주)지에스탑
하달용	(주)삼건환경건설
하승우	하승우 내과
하영구	명진푸드
하윤수	한국공조(주)
하제연	레인보우스튜디오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충호	(주)플러스컴
하호만	(주)티에스티홀딩스
한도준	삼익키리우(주)
한동근	의료법인해성병원
한동엽	방천시장가족족발

성명	회사명
한승훈	(주)유한상사
한영필	(주)에스피코리아
한화용	금도에너지(주)
허성규	우진시스템(주)
허성환	칠곡경북약국
허원희	HK GOLF
허정수	명진약품
허정호	(주)프리미엄에셀
허진길	(주)영산전기
허진구	(주)일성건설
허흥만	(주)명성골프
현성철	(주)이노스벤
현정규	(주)영진기공
홍기표	(주)에이플랜
홍민수	(주)우람
홍영호	(주)바른로지스
홍영호	(주)엔와이엔
홍효정	세영회계법인
황대연	삼오산업가스
황신우	(주)신우씨엠건설
황우곤	(주)피아이에이인프라
황재민	(주)우신산업
황종길	성신내장건설(주)
황현호	인터테크(주)
황현호	변호사황현호법률사무소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회사명
강동한	
강민정	
강석우	
강예동	
강예찬	
강준식	
강지은	
강호영	(주)기안전기통신
고병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영훈	
고재근	
공남기	
구경태	(주)하헌주온열건강과학
구본도	렉서스 대구
구본일	파워트윈스
구태경	
권구호	대한민국 해군
권미향	
권순철	
권영경	MYZ무역
권지웅	
권진희	
금정빈	
기영노	
김결이	스피치킴교육
김광배	(주)에드워드커뮤니케이션즈
김광수	
김규석	대학생
김기림	
김기주	
김남수	
김노영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대구사무소
김도한	
김도희	편애편
김동규	산도테크
김동수	비락
김두연	대한메탈
김두현	
김령경	이지컴퍼니(주)

성명	회사명
김만홍	자영업
김명준	
김민기	
김보민	
김상겸	
김상길	서구청
김상도	(주)셀띠꼬
김상우	우경포스
김상일	개인사업
김선우	
김선욱	
김성수	하오커(메세나폴리스점)
김성우	미스터덕
김성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김성호	
김시현	농협
김영경	다이나믹엔젤스
김영민	
김영민	화영테크
김영삼	굿락코리아
김영수	대법원
김영욱	굿락코리아
김영일	야베스정보통신
김영호	(주)이투
김예지	
김용한	주원유통
김유진	
김윤섭	캠핑리버
김은설	
김은숙	서울떡집
김은주	(주)JID
김은지	다이나믹엔젤스
김재현	대영에코건설(주)
김재환	(주)한일통신
김정민	매천중학교
김정수	
김정식	
김정식	가족엔시오
김정연	새평화약국

성명	회사명
김정원	고려 컨설턴트
김정은	
김종도	대구시 서구청
김주연	
김준현	
김준희	
김지은	
김진욱	
김진희	금복주
김창귀	주부
김창섭	(주)나래시스템
김창한	
김채섭	매그나칩반도체
김충기	
김태우	익도관세법인
김태호	(주)에드스미스
김한우	EZ컴퍼니
김현민	DB손해보험
김현범	VIP축구단
김현승	월앤비전
김현아	
김현용	성진포머
김현준	리서치코리아
김현준	
김현호	미래혁신정형외과
김형준	한국환경공단
김형훈	(주)하츠
김혜란	설대학원
김혜민	반디유치원
김혜정	한국밴딩
김호근	아진상사
김홍복	(주)가람
김효정	
나광무	엘리바덴
남기용	
남정국	
남희건	현대자동차
노의찬	에스엘
노태열	에스엘테크



성명	회사명
노태호	
도기만	삼성생명 대구법인지역단
도영경	
도윤록	주식회사 신광
류경남	(주)런시스템
류재훈	대구소방
문근웅	학생
문병일	서대구스카이
문신혜	
문윤광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문재근	한국아쿠르트
문재성	
문재웅	(주)시너지어스
문재호	(주)대산
문제성	아스텍(주)
민제홍	
박경식	이프비즈
박경환	
박규태	투페이스옵티칼
박도필	농협은행 주식회사
박미성	
박범석	
박병진	(주)다운산업
박병호	기업은행
박상우	쌍박company
박석진	
박선우	
박성규	VIP축구단
박성택	한국퓨얼셀
박수빈	
박수용	자영업
박수정	
박시우	
박용민	
박은진	세영회계법인
박재욱	
박재현	갤럭시관광호텔
박종극	성우실업
박종욱	최상의 류안나법무사 사무실

성명	회사명
박종필	대호약품
박주항	
박주희	주스토리
박준범	(주)신영엘에스
박중철	VIP축구단
박지성	
박진수	
박진우	제이디아이테크
박한얼	
박현정	주식회사JID
박효근	
박희곤	
배병근	현대자동차
배순형	VIP축구단
배운섭	(주)메덱스
배일한	그로윈
배창형	양광테크
백권호	영남대학교
백남석	
백성훈	변호사 민총기. 법무사 김일동 사무소
백진수	자영업
백현동	신흥초등학교
변상범	(주)다현
서승열	VIP축구단
서은혜	에이케이테크대구지사
서장원	(주)전진이엔지
서정순	
서치만	디자인 멤피스
서창덕	엠엠티
서창덕	대구시청
서형오	
석영진	대학생
성웅	히로텔
소재원	신애상사(주)
손동우	
손지현	더월
손판길	
손흥모	
송가연	

성명	회사명
송경규	에이스오일
송병호	
송영빈	
송외숙	
송정화	
송지환	원진산업
신광모	
신세영	
신은경	
신재민	LG전자
신진영	
신형섭	
심남호	월덱스
심은정	
안인호	
안재선	
양다혜	
엄태연	
여하영	
오경희	
오범석	경상공고
오세학	JM테크
오승준	
오영식	
오정아	
오진석	구지중학교
오해윤	관세법인 드림
옥진호	대륙 기초건설
우순월	
우창윤	도담한의원
유경금	
유왕석	대구FC 서포터 클럽 그룹
유해경	
유현재	
윤명수	
윤보람	서비스탑
윤선훈	
윤영언	학생
윤옥제	



성명	회사명
윤재현	
윤찬영	
윤천수	VIP축구단
윤혁준	바젤
은준기	법무법인 창비
이강문	
이경호	
이규성	
이규현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이기택	
이도희	성진포머
이동건	SK건설
이동명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이동민	(주)다운산업
이동우	
이동욱	동아대학교
이동준	
이동호	동호디자인
이래현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교사
이명희	
이미경	
이병현	폭스바겐대구전시장
이상기	모텔 붐
이상대	
이상진	삼성화재
이상혁	명가
이상훈	
이상희	
이석민	EZ컴퍼니
이성길	개인
이성도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이성백	VIP축구단
이성진	
이소정	
이수형	
이수희	
이승재	화성산업
이시우	
이영빈	팔봉

성명	회사명
이영주	루시드
이영철	
이영호	
이옥희	
이인영	서민숏볼구이
이인혁	
이재훈	
이종길	금성농협 가음지점
이종훈	가창본한의원
이주용	북성신용협동조합
이준훈	코스트코
이준희	
이지연	힐드로사이cc
이진형	
이창환	가야축산
이해동	
이현호	
이형석	Emart
이희숙	(주)우진설비
이희연	조은안과의원
이희정	
임상한	
임소명	
임현철	대구가톨릭대학교
임희주	드림병원
장규영	두산공작기계
장문수	
장연주	
장욱진	(주)화랑고무
장원석	
장은지	
장지은	
장진학	
장현찬	ABIMAN ENG
전강욱	조아전자 주식회사
전상범	
전석진	삼성애드
전성호	
전우찬	(주)해밀

성명	회사명
전은실	
전은찬	
전재현	
전해신	VIP축구단
전현욱	
정구환	
정동석	
정동호	
정미경	신세계백화점
정서경	
정성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승호	
정영록	북현중학교
정우영	
정운주	한국항공
정원효	
정윤민	
정은상	
정재관	
정재민	브이성형외과
정종울	대구시청
정현주	태경레이저
정형식	
정휴채	공덕설비주식회사
정희석	
정희원	동북보건지소
정희진	
조동진	VIP축구단
조민경	
조순제	KEIK
조영래	
조영석	
조영재	테라체
조일현	경북대학교
조채용	동성산업
주명희	
주현우	M금융서비스
지정인	
지현우	자영업



성명	회사명
진성록	영남이공대학교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차대욱	네오테크
차승화	
차재원	
차효준	씨앗과땀
채근석	부경상사
채명신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채수완	경일대
채종영	공군
채현미	
최기진	디에스피이엔지
최만석	신앙과 역사문제 연구소
최문규	대구북부소방서
최병천	진성테크
최석용	경창산업(주)
최수영	
최수현	현대건설
최영진	대구시청
최영찬	미성섬유
최용대	대진공업사
최원식	경희한의원
최육사	(주)네오플
최의택	달서구축구협회
최재락	지에이코리아(주) 행복플러스지사
최헌수	
최혜윤	
최호일	법무부
최희윤	국민대학교총동문회
태해석	VIP축구단
피성환	
하재묵	LIG넥스원
하종찬	아이씨로지스
하중훈	
하주홍	대구교도소
한동애	시크릿
한동주	
한병준	태화디앤씨
한승욱	한국은행

성명	회사명
한종건	바르미 호텔인터불고대구
한종성	GS리테일
한현화	
허난영	(주)캔유여행사
허 재	SK하이닉스
현규익	대성인터내셔널
홍성혁	아이디온한국협농
홍재범	곽병원
황덕현	
황득주	
황미하	노보노디스크제약
황성희	벤디스
황승준	삼삼종합건설
황유빈	
하종찬	아이씨로지스
하중훈	
하주홍	대구교도소
한동애	시크릿
한동주	
한병준	태화디앤씨
한승욱	한국은행
한종건	바르미 호텔인터불고대구
한종성	GS리테일
한준희	
한진현	
허난영	(주)캔유여행사
허영욱	
현규익	대성인터내셔널
형연주	
홍성혁	아이디온한국협농
홍재범	곽병원
황기숙	
황덕현	
황득주	
황미하	노보노디스크제약
황성희	벤디스
황승준	삼삼종합건설
황유빈	



대구FC엔젤클럽은 시민구단 대구FC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축구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뜻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대구 전용구장시대 2022년에도 엔젤클럽은 다시 한 번 '대구시민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민구단 대구FC의 발전은 우리 대구의 발전과 같습니다.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대구의 희망을 만드는 진정한 '시티즌 오블리주(Citizen Oblige)'의 실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가입문의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 전화 053-602-7307

📠 팩스 053-602-7306

대구FC엔젤클럽 홈페이지

www.dgfcangel1004.co.kr

대구FC엔젤클럽
회원이 되면
매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후원금 납부

- 다이아몬드 1,000만 원 이상
- 일반 100만 원 이상 / 자동이체의 경우 월 83,000원
- 엔시오 12만 원 이상 / 월 10,000원 ※ 엔시오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자동이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힘드신 경우 일시납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엔젤 릴레이

- 릴레이 방식으로 추천

홍경기 직접관람 응원

- 대구FC 홍경기 시 엔젤존 운영(DGB대구은행파크 W1, W2, W3)

각종 엔젤클럽 행사 참여

- 엔젤클럽 회원으로 대구FC 홍보 활동 적극 참여 권유

혜택

- 가입기념품
- 행사 참여
- 홍경기 관람(후원금 액수 내에 가능)



가입신청서

※ 가입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명				가입번호			
회사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상의 사이즈	
주소	※ 우편물 수령 주소						
E-mail				추천인			

후원 금액

- ☐ 월 83,000원 - 자동이체
☐ 1,000,000원 -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 1,000,000원 이상 - 사무국 문의

※ 후원금은 대구FC 계좌로 입금되며, 경비처리 관련 사항은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방법

☐ 계좌 이체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카드 결제 : 카드결제 시 사무국으로 통보바랍니다.

☐ 자동 이체 : 예금주 : _____ 생년월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해주신 정보는 대구FC엔젤클럽 가입 및 혜택 제공 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구FC엔젤클럽 가입을 위해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 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엔젤클럽 회원 추천

본인은 엔젤클럽 가입과 함께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주위의 뜻있는 분을 엔젤클럽 회원으로 추천한다.
※ 추천인이 있을 경우 엔젤클럽 사무국(아래 연락처 참조)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 우편 발송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42064)
- 팩스 송부 : 053-602-7306, 메일주소 daeguangel@naver.com
- ※ 문의 사항은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 053-602-73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22 대구FC엔젤클럽에 가입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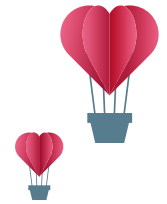
신청인

(인)

대구FC엔젤클럽

아름다운 대구·경북을 위해

금복재단이 함께합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50억 후원

대구·경북 체육성금 및 독도 후원금 지원

금복문화상 시상 및 예술인 후원

연말 따뜻한 동행 캠페인 성금 10억 후원

코로나19 극복기금 20억 후원

서문시장 화재 복구 성금 후원

포항·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후원

영덕 태풍 피해 복구 성금 후원



금복문화재단 금복복지재단 금복장학재단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체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공구로 세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구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쓰이도록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산업공구 전문기업 크레텍이 있습니다.



2021 국가품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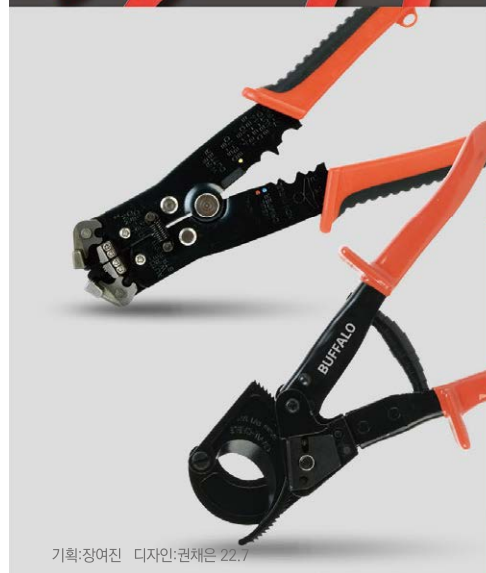
동탑산업훈장

2020 한국유통대상

대통령표창



경상중 야구단 후원 | 제일여상 자매결연 | 경북대 산학협력 | 대구새마을회 후원 | 대구육상연맹 후원 | 대구FC 후원



기획:정여진 디자인:권채은 22.7



VVINT

AIR TOWER

빈트 NEW 에어타워 공기청정기

COTEX 항균동필터로 더욱 깨끗하게 살균까지
2022년형 빈트 NEW 에어타워



3중 필터 원단



항균 필터



스마트 조도센서



4단계 LED 라이팅



우수한 전력 효율



소음 최소화

대영전자주식회사
DAEYOUNG ELECTRONICS CO., LTD.

빈트 브랜드 홈페이지
www.vvint.co.kr

구입 문의 : 010-8259-4778
A/S 문의 : 1566-3990



부식

이이 함성